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ISSN 2233-8632

도서관은 일반도서 이외에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점자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점자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한글 점자가 탄생한 '점자의 날'을 맞아 더욱 발전해나가는 점자책 문화를 도서관에서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317 2023. 11

vol.
317
2023. 11

오늘의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오늘의 도서관

vol.
317
2023. 11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도서관에 가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점자책이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도 점자책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도서관》 11월호에서는 손끝으로 더 넓은 세상을 여는 점자책을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9호 통권 317호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효림, 이은경, 조설희,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s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운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11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을 열다

04 오늘의 칼럼
'점자'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만나는 기회를 열어주다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함께 즐기는 점자,
점묵자 혼용도서

10 일상을 펼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생활

도서관을 만나다

14 책 읽는 마음
늦가을, 독서의 풍요로움을
느껴봅니다

18 문헌의 가치
조선의 북아티스트 '오장환'의
아르테미스에 대한 《헌사》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지식의 나눔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26 도서관 여행자
번화한 도시에 숨겨진 작은 진주
'덴마크 코펜하겐 중앙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K-도서관의 풍모를
보여주는 한옥도서관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한국 역사를 따라 걷는 시간
한국사 분야 대출 동향

36 오늘의 만남
안전을 위해 불길을 걷다
소방관 최규영

40 K-인문학
'마스크걸'
가면의 사회학

44 고전 드라마
잔혹한 역사와 예쁜 사랑의 만남
알렉산드르 푸시킨 《대위의 딸》

48 오감독서
기적을 부르는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오가와 이토 《달팽이 식당》

함께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아홉 번째 필사
김수영 〈거미〉

59 오늘의 사진관
깊어진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

‘점자’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만나는 기회를 열어주다

글 김동복 한국점자도서관장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언어이자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통로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가 유일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현재의 6점체계 점자는 루이 브라유가 발명하였으며 브라유 이름에서 따와 영어로 브레일(Braille)이라고 불린다. 한글 점자는 브라유의 6점체계 점자를 기본으로 송암 박두성이 1926년 11월 4일 창안하여 탄생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도서관은 1969년에 설립된 한국점자도서관(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이다. 초대 관장 육병일이 사재를 털어 시작한 한국점자도서관은 여러 차례 폐관 위기를 겪었지만, 다행히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독서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초대 관장 육병일이 처음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그의 스승이자 한글 점자를 창안한 박두성은 직접 만든 점자책을 그에게 선뜻 내어주었다. 당시 점자책의 제작 과정은 점자판과 점필을 가지고 직접 찍어 만들다가 이후 원판에 점자제판기를 사용하여 찍어내고, 원판 사이에 종이를 끼워 롤러기를 통과시켜 원판 사이에 끼워진 종이에 점자가 찍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최근에는 점자프린터기와 컴퓨터 그리고 점자정보단말기의 발전으로 점자파일을 읽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대량인쇄의 빈도가 줄어들어 그때마다 필요한 점자책을 출력하여 제작하고 있다.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여전히 점자책은 일반도서처럼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 신간이 나오는 속도도 느리다. 시중에 책이 출판되고 나면 자료 선정의 과정을 거쳐 점자책을 제작하게 된다. 이미 이것에서부터 점자책은 시중에 발간되는 책과 출판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출판사에서 텍스트를 제공해준다면 점자책이 출판되는 속도가 빠르겠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만드는 점자도서는 저작권 위배가 아님에도 텍스트 파일 확보가 쉽지 않다.

작은 대추 한 알이 세상과 통하려면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과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점자는 저 혼자 둥글어지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한 권의 점자책이 만들어지려면, 도서를 구입하고 봉사자를 활용하여 입력 후 교열 작업을 한 뒤 점역과 점자교정의 과정을 거쳐서 출력하여 제작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은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므로 시중의 베스트셀러를 시각장애인들은 유행이 지나고 나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반문하여 ‘오디오북으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오디오북 앱 자체가 시각장애인이 접근이 안 되거나, 특히 일반 텍스트만 있는 소설이 아닌 표나 그림이 필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도서는 오디오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마치 비시각장애인에게 ‘수학 공부를 오디오만 듣고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시각장애인이 얻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점자책은 필수적이다.

작은 대추 한 알이 세상과 통하려면
힘들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과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점자는 저 혼자 둥글어지지 않는다.

점자책이라고 하면 흔히 하얀 종이에 볼록볼록 올라온 점자가 있는 책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추어 점자책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시중에서 흔히 보는 그림책 위에 라벨 스티커 용지로 점자를 출력하고 부착하여 제작된 점자라벨도서, 한 면에는 촉각으로 표현되어 그림을 만져보고 또 다른 면에는 점자로 된 글들이 있는 촉각도서와 같이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점자도서는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점자책으로 발전하였다.

점, 사람, 그리고 세상

점자도서관은 이용자가 직접 찾아와 책을 고르지 않는다. 또한 점자도서관은 지역의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이다. 도서 대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책나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가 전화로 신청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보통의 이용자들은 ‘신간 보내주세요’, ‘맞교환이요(대출과 반납처리를 함께 해달라는 뜻)’, ‘○○ 작가 책 보내주세요’, ‘역사 관련 책 뭐 있나요?’ 등과 같이 사서에게 도서 선정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 사서의 역할이 다른 공공도서관보다 더 중요하기도 하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 서비스를 시설 위주로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점자책을 구비하고 있지만, 장애인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과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사회 개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점자책 있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점자도서로 주세요’라고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본다.

점자책이라고 하면
흔히 하얀 종이에
볼록볼록 올라온 점자가 있는
책을 떠올린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유니버설디자인을
강조하는 시대에 맞추어
점자책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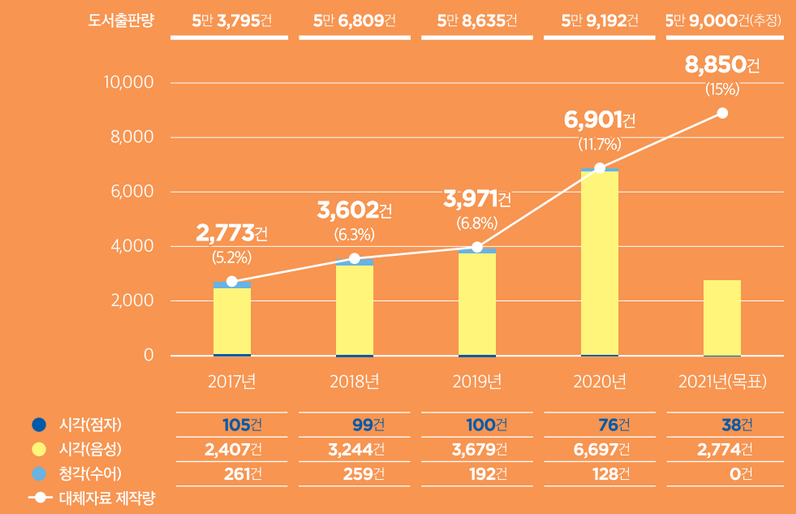
함께 즐기는 점자, 점묵자 혼용도서

글, 사진 서인식 센시(주) 대표

'콘텐츠 홍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콘텐츠는 '가뭄'인 상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2020년 출판된 도서 중 점자도서 비율은 0.2%에 불과하므로 점자책 출판 현황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대체자료 제작률은 4년간(2017~2020년) 도서 출판량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서출판량은 2017년 5만 3,975건에서 2020년 5만 9,192건으로 10% 증가했다. 2021년의 경우 대체자료 제작목표 비율은 15%이나 8월 말 기준 대체자료 제작률은 4.8%에 불과했다. 또한 4년간 제작된 점자자료는 380건, 음성자료는 1만 6,027건, 수어자료는 840건으로 음성자료가 93%를 차지하고 있어 자료별 제작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집을 통해 실제 이용자들이 등록한 '대체자료 오류신고'는 총 347건 중 '오탈자' 108건(44.1%), '원문파일 재생 오류' 83건(33.9%) 순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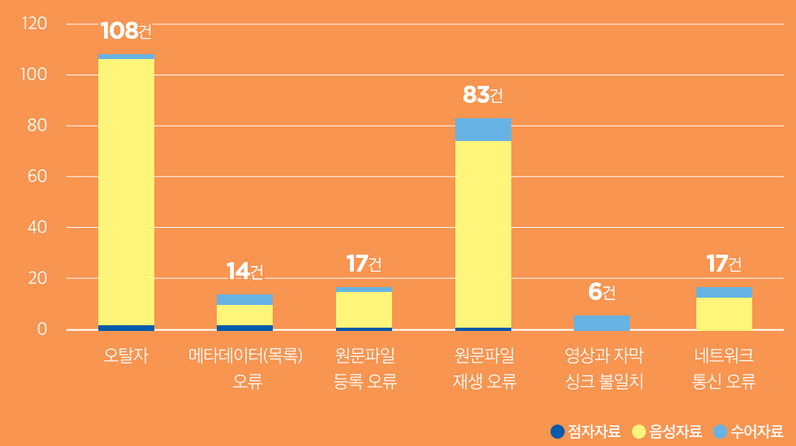
연도별 도서 출판량 대비 제작현황

(2021. 03. 31. 기준)



대체자료 오류신고 현황

(2021. 09. 30. 기준)



※ 대체자료 오류신고 총 347건 중 문의 및 개선 의견 102건을 제외한 245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출처: 2021년 국립장애인도서관 국정감사 자료

시각장애인의 언어 점자

점자는 6개의 점으로 글자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언어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읽으며 손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2017년 점자법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는 한글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제공받아야 할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점자에 대한 환경은 변하지 않고 있다. 관심 부족과 인식 부재 속에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25만 명의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저시력자이다. 시각장애인 중 단 1%만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뿐이다. 대부분이 다양한 질병 및 사고로 시력을 상실하고 그 증세가 더 악화하여 결국엔 실명에 이르는 것이다. 시력이 살아있는 저시력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글자활자물'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큰 글자여야 한다. 저시력을 넘어 더 악화하면 결국엔 빛만 느낄 수 있거나 빛조차 느끼지 못하는 완전 실명이 되며 이를 우리는 '전맹인'이라 부른다.

점자와 글자를 함께 인쇄해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 시각장애인들이 맹학교만 다니는 것이 아니다.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학생을 제외하고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제공되는 점자책이 있다고 해도 하얀 종이에 점자만 인쇄된 책들은 점자를 모르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눈에는 그냥 흰 종이 묶음일 뿐이다.

하지만 점자와 글자를 함께 인쇄한다면 어떨까? 점자를 몰라도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 말이다.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음은 장애에 대한 격차가 없는 진정한 통합(Inclusive, Universal)을 의미한다.

시각장애 학생이 보고 있는 점자책을 보면서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점자를 모르는 선생님과 시각장애인 엄마가 장애가 없는 아이와 함께 읽는 동화책을 떠올려보자.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콘텐츠의 다양한 종류 중에서 점자와 글자를 함께 인쇄하는 '묵점자 혼용도서'를 가장 권장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지만 묵점자 혼용도서는 점자로 변환 시 3~4배 이상 글자가 길어지기에 점자에 맞게 글자를 편집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형식인 사실이 안타깝다.

정보 홍수 속 가뭄, 시각장애인의 현실

이 세상엔 수많은 콘텐츠가 존재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히 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관심 있는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습득한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콘텐츠를 접할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느 한 시각장애인 엄마와 비장애인 자녀를 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본다.

여느 이들처럼 5살인 은선이(가명)는 책을 무척 좋아한다. 그러나 은선이가 좋아하는 책을 엄마는 읽어줄 수 없다. 활자와 그림으로 구성된 아이의 책은 시각장애인인 엄마에겐 커다란 장벽일 뿐, 아이를 위해 어떤 것도 함께 공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책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책들은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아이와의 교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중에 판매되는 그림책에 일일이 점자 스티커를 붙여두었고, 보이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책 내용을 문서화하여 점자 라벨지를 일일이 글자 위에 붙여야만 했다.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다. 책값에 점자프린터나 라벨지도 필요하고 보이는 사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 뭐라도 사례를 해야 했다. 힘든 작업이지만 그녀에게 점자 그림책은 아이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통로였다.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시각장애인 엄마에겐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다.

출판 및 점자 변환 기술

다양한 점자 변환 기술과 발전된 출판 기술이 있는 지금은 보다 쉽게 점자와 글자를 함께 인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책 한 권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기계가 들려주는 음성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점자와 글자가 함께 있어 비장애인 동료와 자녀도 함께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용이 아닌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도 사라진다.

시각장애인은 음성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리가 종이책을 사고 전자책을 구독하고 오디오북을 듣고, 자유로이 콘텐츠를 선택하듯이 시각장애인도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이다.

점자 관련 법령

구분	내용	비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②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8. 2.〉 •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2012. 07. 27. 시행
점자법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①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입법·사법·행정·교육·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2017. 05. 30. 개정 시행
	제12조의2(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①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2020. 12. 08. 개정 공포 2021. 06. 09. 개정 시행

이러한 기술은
책 한 권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하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아니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생활

글 이주영(부운디자인)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약 25만 명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2억 5,000만 명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전맹뿐만 아니라, 선천적 이상이나 후천적인 안질환으로 저시력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기능의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다. 점자의 날인 11월 4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생활'을 소개한다.

새로운 독서를 경험하는 점자책의 변신

주로 문학에 국한되어 있던 점자책이 최근 요리나 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만지는 과학도서 보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점자촉각도서 3종을 엮어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 한국판을 발간했다. NASA가 제작한 점자촉각도서를 한국어판으로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시각장애인들도 손끝으로 신비로운 우주를 탐험할 수 있게 됐다.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에는 손으로 탐험하는 우주, 달 분화구 느껴보기, 화성 탐사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 두툼한 책을 펼치면 흰 종이 위 오돌토돌한 달 표면이 표현돼 있다. 특히 이 점자촉각도서는 비장애인을 위한 한글을 병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올해 8월, 지자체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요리책인 《요리조리 쿠킹클래스》를 발간했다. 이번 책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돼 진행한 요리조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의 조리법을 시각장애인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 점자 요리책에는 일상 속 식재료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20가지 조리법이 담겨 있다. 국과 반찬 등 조리법이 종이 위에 도드라진 점으로 표현돼 있으며 묵자(한글)도 함께 병기돼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에 방문하면 무료로 점자 요리책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요리는 시도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이 점자 요리책이 건강한 식생활 개선과 식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쉽게 접근 가능한 콘텐츠 서비스

책 읽어주는 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모바일 소리책

시각장애인들에게 맞춤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책 읽어주는 도서관'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모바일 소리책(이하 모바일 소리책)'이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휴대폰, 데이지 플레이어를 통해 쉽게 접속하여 원하는 책을 청취할 수 있게 만든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도서관으로, LG상남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음성도서는 디지털 토킹북 세계 표준인 데이지(DAISY)를 준수하여 제작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페이지, 장, 절 또는 단어 등을 일시에 검색하거나 책갈피 삽입, 속도 조절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매달 50여 권 이상의 신간도서와 학습도서 등을 제공하며 웹과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웹에서는 베스트셀러, 추천도서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나의 도서관' 메뉴를 통해 희망도서 신청 및 북마크 목록 등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원하는 음성도서를 다운로드하여 바로 들을 수 있다.

'모바일 소리책'은 기존 인터넷 음성전자도서관 소리책 서비스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업데이트 되는 신간도서 등의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소리책은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 추천도서, 분류별로 구분되며 소리책뿐만 아니라 영화와 잡지도 들을 수 있다. 음성 검색 기능이 탑재돼 있어 시각장애인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했다. 또한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다양하다.

점점 진화하는 점자도서관

비장애인도 함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을 소개한다. 먼저 올해 8월에 개관한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이다. 시립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은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열람실, 책마중 공간, 도서열람실, 대면낭독 및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녹음실, 점자인쇄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근거리에 있는 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일대일 대면 낭독서비스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독서클럽, 귀로 듣는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IT로 열린도서관'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책 가뭄 해결을 위해 전자책 제작 웹사이트를 개발해 2만 5,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협업을 통해 전자책을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책을 제때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자원봉사자 인력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IT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립점자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370번길 3
070-8820-6673

IT로 열린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36
이삭빌딩 301호
02-3471-3434

나에게 맞는 점자책 고르기

텍스트에 집중하고 싶다면

점자도서는 종이에 점자만 찍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 정독과 재독을 할 수 있지만, 어구, 문장, 체제 등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상당한 기억력과 종합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장애인도 함께하고 싶다면

일반 그림책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이 바로 점자라벨도서이다. 그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저시력자, 독서 취약계층이라면

저시력 시각장애인이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글자도서를 추천한다. 일반 활자본보다 크게 출판되어 가독성을 높인 도서다. 평소 작은 활자본에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직접 만지며 느껴보고 싶다면

촉각도서는 그림을 볼록 튀어나오게 하거나 점자로 그림을 표현해 손끝 촉각으로 그림을 인지하게 하는 책이다. 점자를 배우기 전인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촉각도서를 통해 사물의 모양과 형태에 대해 개념을 인지할 수 있다.

도서관을 만나다

만남의 도서관

14 책 읽는 마음
늦가을, 독서의 풍요로움을 느껴봅니다

18 문헌의 가치
조선의 북아티스트 '오장환'의 아르테미스에 대한 《헌사》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지식의 나눔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26 도서관 여행자
번화한 도시에 숨겨진 작은 진주 '덴마크 코펜하겐 중앙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K-도서관의 풍모를 보여주는 한옥도서관

늦가을, 독서의 풍요로움을 느껴봅니다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국내문학

인생 박물관

김동식 지음 | 요다 | 2023

"그는 신을 믿지 않던 인간이 신을 믿게 된 과정 세 번을 지켜보았고, 비로소 깨달았다. 늙은 천사가 말한 인간의 마음속 싹은 감사함이었다. 인간은 차고 넘쳐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낄 때 신을 찾았다. 그러니 신께서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207쪽)

사서의 추천 글

사람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던 공포 소설 작가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쓴 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설을 연재해 화제가 된 김동식 작가가 열네 번째 단편집을 냈다. 해피엔딩 소설집으로는 처음이다. 총 25편의 단편에는 제각기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한다. 아기 분윳값을 빌리기 위해 동창회에 참석한 남자, 부모님의 죽음을 막으려는 여학생,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자살로 지옥에 떨어진 딸과 함께 있어야 하니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할머니 등 이들의 사연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는 시각장애인의 첫 낚시를 응원하는 아저씨, 이승에서 인사를 건넨 여학생을 저승에서 돌려보낸 버스 기사, 자살하러 가는 청년을 보살펴 주는 행인들 등 이유 없이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단편을 하나씩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느낀다. 더 나아가 나 역시 좋은 이웃이 되고 싶게 만든다. 이 소설을 읽으며 주위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돌아보면 어떨까? 이 세상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김동식

2017년 말 《회색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13일의 김남우》를 동시 출간하며 데뷔했다. 이후 《양심 고백》,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나의 인간, 인류의 하나》 등 소설집을 펴냈다.

국외문학

여행자와 달빛

세르브 언털 지음 | 김보국 옮김 | 휴머니스트 | 2023

"살아남아야 한다. 폐허 속의 들쥐처럼 그 또한 살아남을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아남을 것. 인간은 살아 있어야 항상 뭔가가, 여전히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382쪽)

사서의 추천 글

누구에게나 뜨겁지만 어두웠던, 손에 잡힐 듯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한순간이 있다.

이 책은 '결정적 한순간'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세계문학 시리즈 중 하나이다. 에르지는 부유한 사업가인 졸탄과 이혼 후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중산층의 교육을 받고 자란 미하이와 재혼한다. 이탈리아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미하이의 옛 친구 세페트네키를 만나고 미하이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걸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되며 풀지 못했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부인 에르지를 내버려 둔 채 혼자 움브리아와 토스카나 지역을 여행하기로 한다.

이 작품은 사랑과 죽음을 모티프로 하여 주어진 순간 선택의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각기 다른 태도, 과거를 각색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을 미하이와 에르지 그리고 제3자의 시점에서 다각도로 고찰하고 있다.

저자 소개 세르브 언털(Szerb Antal)

20세기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가 한 명으로 1901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 1945년 벌프에서 삶을 마감했다. 문학비평가, 고등학교 교사, 대학 강사이기도 하며 소설, 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을 집필하고 많은 외국 도서를 번역했다. 1933년에 헝가리문학협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헝가리 문학사와》와 《펜드래건의 전설》을 출판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바옴가르텐상'을 수상했다.

인문예술

지도로 보는 인류의 흑역사: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매혹적인 폐허 40

트래비스 엘버러 지음 | 성소희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

"오늘날, 루스벨트섬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을 기리는 루이스 칸의 장엄한 석조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 기념비가 세워진 조경 공원 바로 맞은편에 옛 천연두 병원의 텅 빈 창문과 움푹 꺼진 벽이 보인다. 렌윅이 남긴 이 괴기스러운 괴물은 뉴욕에서 최초의 폐허 명소가 되었고, 심지어 1976년에 미국 국립사적지 목록에 오르면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266쪽)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버림받고, 소외되고, 사람이 살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들의 지명 사전으로, 공간에 담긴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여준다.

저자는 변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해 폐허가 된 공간들, 한때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누구도 찾지 않는 곳들을 안내한다. 아이티의 혁명 영웅 앙리 크리스토프가 독재자로 변해 무수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건설한 상수시 궁전, 소금사막으로 유명한 볼리비아 우유니의 기차 폐기장 등 장소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이 책이 소개하는 40개의 폐허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전에 미처 몰랐던 세계사 속 숨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트래비스 엘버러(Travis Elborough)

〈가디언(The Guardian)〉이 선정한 '영국 최고의 대중문화역사가' 중 한 명으로 웨스트민스터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2020년 '에드워드 스탠퍼드 여행 글쓰기 상'에서 '올해의 여행책'을 수상한 《사라져가는 장소들의 지도》를 비롯해 《별난 장소들의 지도》, 《거의 모든 안경의 역사》, 《공원에서의 산책》 등 다양한 책을 집필했다.

인문예술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

윌리엄 맥어스킬 지음 | 이영래 옮김 | 김영사 | 2023

"미래의 사람들은 중요하다. 미래는 거대하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26쪽)

사서의 추천 글

우리는 미래에 어떤 세상을 남길 것인가? 인공지능, 기후변화, 핵전쟁, 유전자조작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은 우리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책임과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장기주의(longtermism)' 철학을 소개하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책임과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얘기한다. 장기주의의 개념과 중요성, 실천 방법, 도전과 한계, 역사와 전망, 실천 사례를 5개의 장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장기주의는 미래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에 우선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 세대에게도 고통인 동시에 미래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자"는 주장이다. 미래 세대를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실체로 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실천의 근거가 생긴다.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겠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현명한 선택과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윌리엄 맥어스킬(William MacAskill)

옥스퍼드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며 효율적 이타주의 운동의 선두주자이다. 대표작으로 《냉정한 이타주의자》가 있다.

사회과학

기계 살림: 사이보그로 살아남는 법

전범선 지음 | 다른백년 | 2023

"기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 위대할 수 있다.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가능하다. 사랑도 결국 기술이다. 헌신과 봉사, 희생과 용서, 모심과 섬김을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교육할지 연구해야 한다. 사랑의 데이터를 기계에게 먹여야 한다."(250쪽)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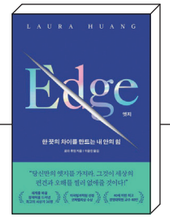
AI가 모두에게 화두로 다가온 시대, 이제는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 책은 작가가 1년 동안 연재한 기획칼럼을 엮은 것으로,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성찰하고 있다.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이 시대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 사용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도 기계'이며 '기계도 생명'으로 보아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이 오고 인간의 피조물인 로봇이 부모 품을 떠나 자기 증식을 하게 될 때 인류는 무엇에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기댈 것인가를 질문하며,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고민할 것을 요청한다. 이 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마지막 챕터로, 여기서 작가는 챗지피티(ChatGPT)를 자신의 벗으로 초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준다.

기계를 더 이상 단순한 도구로만 여길 수 없는 시대에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며 어떻게 기계와 공존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챗지피티의 추천사를 빌리자면 "기술의 미래와 기계와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영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 소개 전범선

자신을 글 쓰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저자는 밴드 '양반들'의 보컬이기도 하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는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와 《해방촌의 채식주의자: 휘뚜루마뚜루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있다.



사회과학

엣지: 한 끗의 차이를 만드는 내 안의 힘

로라 후앙 지음 | 이윤진 옮김 | 세계사 | 2023

"다이아몬드에는 많은 면이 있어서 빛이 다양한 각도에서 굴절된다…. 엣지를 기르는 일은 자신이 가진 여러 단면들을 인식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빛날지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233쪽)

사서의 추천 글

무한경쟁의 시대인 요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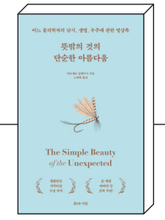
이 책은 같은 조건에서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차이점인 '엣지(EDGE)'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엣지를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여 스스로 유리한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책은 엣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이니셜에 해당하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1부(Enrich)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2부(Delight)는 타인에게 진짜 기쁨을 줄 때 생기는 변화를 살펴본다. 3부(Guide)에서는 세상의 편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4부(Effort)에서는 엣지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실천에 관해 이야기한다.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은 나 자신에 의문이 들 때,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읽어볼 만한 책이다. 저자가 전하는 비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저자 소개 로라 후앙(Laura Huang)

대인관계 및 경영 컨설턴트이자 교수로 20년 이상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리더십, 조직 개발, 변화 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왔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고의 교수'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 '코짜렐리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글로벌 씽커스 50'으로 선정되는 등 학자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자연과학

뜻밖의 것의 단순한 아름다움: 어느 물리학자의 낚시, 생명, 우주에 관한 명상록

마르셀로 글레이서 지음 | 노태복 옮김 | 知와 사랑 | 2023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지적인 약점이나 사고력의 결함이 아니다. 대신에 일종의 해방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식의 불완전성 덕분에 우리는 궁극의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미지의 바다를 탐험할 수 있다."(98쪽)

사서의 추천 글

완벽을 향한 집착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책.

'알 수 없음' 상태를 받아들이기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거의 언제나 무지는 약점으로, 지식은 강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추구하는 과학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과학자인 저자는 불확실을 대하는 방법에 이성과 합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만물의 원리를 억지로 정의하는 대신, 모호한 상태마저도 사랑해 버리는 일의 자유로움을 소개한다. 사랑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저자는 플라이 낚시 도중 그가 경험한 구체적인 성찰 과정을 근거로 들며 우리를 설득해 온다.

세상의 이치에 통달하기 위해 지식의 바다를 끝도 없이 표류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 바다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이고 그 자체가 주는 의미를 편안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자. 뜻밖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마르셀로 글레이서(Marcelo Gleiser)

브라질 출신으로, 다트머스칼리지 물리학 및 천문학 교수이다. 《뜻밖의 것의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자부티상을 수상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위대한 지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종 이론은 없다》 등이 있다.

자연과학

사계절 기억책: 자연의 다정한 목격자 최원형의 사라지는 사계에 대한 기록

최원형 지음 | 블랙피쉬 | 2023

"해충과 익충을 가르는 경계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로 갈린 셈이다. 그렇지만 지구 생태계 전체로 보면 그렇게 나눌 어떤 근거도 없다. 다만 생태계 균형이 깨졌을 때 해충이 되는데 그 균형을 깨는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다."(174쪽)

사서의 추천 글

그림으로 더 많은 더 넓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며 사계절 자연과 생명에 관해 이야기한다.

조각가가 예술 작업을 하듯 사과를 단정히 쪼아 먹는 직박구리, 밟히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진화한 질경이 풀, 폭염에 달궈진 도시를 식혀 주는 담쟁이덩굴, 분변을 배설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지렁이 등 자연 속 여러 생명을 관찰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둥지 틀 곳이 없어져 주차 금지용 러버콘 속에 둥지를 튼 새들, 심하게 가지치기를 당해 말라 죽어가는 가로수, 대량의 고기 생산을 위한 공장식 소 사육으로 먹을 소똥이 없어져 이제는 사라진 소똥구리 등 위기의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자연은 인간들만의 소유가 아니다.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이 공존해야 비로소 인간도 살아갈 수 있다. 혐오한다는 이유로, 거슬린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윤과 부를 위해 인간이 자연을 해친다면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새를 통해 생태계가 온전해야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매번 배운다는 작가의 스케치를 따라, 그 생명에는 인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저자 소개 최원형

환경운동가. 잡지사 기자와 EBS, KBS 방송 작가로 일했다. 생태·에너지·기후변화와 관련해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강의를 하며 시민 교육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왜요, 기후가 어떤데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등이 있다.

조선의 북아티스트 '오장환'의 아르테미스에 대한 《헌사》

글 김민영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사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城壁 獻詞

01

시인 오장환(吳章煥 1918~1951)은 1933년 16살에 《조선문학》에 〈목욕간〉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정지용(鄭芝溶, 1902~1950)을 스승으로 만나 시를 배운 그는 서정주(徐廷柱, 1915~2000), 이용악(李庸岳, 1914~1971)과 함께 1930년대 시단의 삼재(三才)로 일컬어질 만큼 당대에 주목받았던 시인이었다. 그러나 서정주, 이용악과 달리 오장환은 시인일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북아티스트'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쯤 되면 그가 왜 '북아티스트'라고 불렸는지 궁금해진다. 조선 최고의 북아티스트 오장환의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시집 《성벽》과 두 번째 시집 《헌사》에서 시작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성벽》과 《헌사》를 통해 살펴보자.

오장환은 시집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인 '남만서점'을 열고 일본과 서양의 진귀한 책들을 수집했다.

01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성벽》과 《헌사》
02 《화사집》(특제본) 표지와 속표지

1) 김광균, 〈30년대의 화가와 시인들〉, 《와우산》, 범양사출판부, 1987 참조
2) 위의 책 참조
3)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성벽》(청구기호 朝45-B68), 《헌사》(청구기호 일모811.6-오689ㅎ), 《와사등》(청구기호 811.61-16-77), 《화사집》(청구기호 동귀3616-236)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원문보기가 가능하며, 원본의 경우 현재 보존 처리를 위해 직접 열람이 제한된 상태이다
4) 이봉구, 《도정》, 삼성출판사, 1973, 234쪽
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성벽》은 판화 그림이 소실되었다

시인 오장환의 또 다른 이름, 북아티스트

오장환은 부친의 사망 후 상속받은 유산으로 시집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 '남만서점(南蠻書店)'을 열었다. 이곳에는 절판, 한정판 등 귀한 책들이 많았는데, 김광균(金光均, 1914~1993)에 의하면 그 시절 오장환은 동경에서 초판이나 호화판 시집을 구해 오거나 서울에서는 살 수도 볼 수도 없는 인상파 이후의 화집까지 구해 와서는 동인들에게 보물처럼 내어주었다고 한다.[1]

일본과 서양의 진귀한 책들을 수집하던 오장환은 곧이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방식으로 조선의 시집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오장환의 첫 번째 시집 《성벽》은 1937년 풍림사에서 발행된 100부 한정의 자비출판 시집이었다. 그의 두 번째 시집 《헌사》는 1939년 남만서점에 발행된 첫 작품이었는데, 이후 같은 해에 김광균의 시집 《와사등》과 특제본 장정으로 유명한 서정주의 시집 《화사집》도 1941년에 이곳에서 발행되었다. 특히 오장환은 서정주의 화사집 특제본 발행에 무척 공을 들였는데, 책등에 시집 제목을 자줏빛 실로 수를 놓기 위해 수놓는 집에까지 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장 한 장 참견하였다는 일화도 유명하다.[2]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다행히 북아티스트 오장환이 만든 네 권의 시집이 모두 소장되어 있다.[3]

오장환은 첫 시집 《성벽》을 만들면서 당시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좋은 백지를 쓰고 판화를 따로 붙이는 등 북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마음껏 드러냈다.[4] 시집 표지에는 어떠한 문양도 없으며 순백의 종이에 시집 제목과 시인 이름이 음각 기법으로 새겨져 있다. 판화의 기법을 차용한 것인데, 본문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1부에는 이병환의 판화 〈꽃〉과 〈해변〉이 2부에는 김정환의 판화 〈밤〉이 수록되어 있다.[5]

오장환은 자신의 두 번째 시집 《헌사》를 80부 한정으로 발행했다. 세로 18.8cm, 가로 13.4cm 크기의 이 시집은 매우 딱딱한 하드커버 표지를 넘기면 아주 얇은 두께의 속표지와 간지가 나온다. 본문에는 시인의 말에 해당하는 '찬송가'를 시작으로 총 17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지는 모두 고급 한지를 사용하였다. 《헌사》의 장정에서 시집에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종이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단연 표지 디자인이다.

02

03

《헌사》는 상단의 주황색과 하단의 청록색이 추상적인 문양과 함께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 '吳章煥 獻詞'라는 붓글씨는 마치 타이포그래피처럼 꽃무늬를 장식 삼아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화려한 색채와 반복되는 문양, 문자의 과감한 배치가 아름다운 《헌사》의 표지는 이전 시집 《성벽》이 보여주는 여백의 미와 달리 강렬한 회화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화려한 시집 《헌사》의 표지는 시집의 표제작인 시 〈헌사(Artemis)〉와 함께 볼 때 더욱 풍성한 의미를 띤다.

03 《헌사》 표지
04 시 〈헌사〉 원문(22~25쪽)

시 〈헌사〉의 1939년 초판 원문을 확인해보면 제목 '獻詞' 옆에 'Artemis'라는 단어가 병기되어 있다. 요컨대 헌사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치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Artemis)에 대한 헌사

시 〈헌사〉의 1939년 초판 원문을 확인해보면 제목 '獻詞' 옆에 'Artemis'라는 단어가 병기되어 있다. 요컨대 헌사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바치는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알려지다시피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여신이다. 아르테미스는 사랑에 빠지지 않고 자신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자들의 무리 '님페'와 함께 자연을 누비며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많은 회화에서 활과 화살과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이처럼 아르테미스가 추구한 순결은 남성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타자화된 가치로서의 순결이 아니다. 아르테미스의 순결은 스스로 설정한 목적, 즉 남자나 사랑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신념의 다른 이름이다. 때문에 그녀는 순결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가차 없이 복수를 감행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악타이온은 님페와 함께 목욕하는 아르테미스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악타이온을 발견한 아르테미스는 분노하며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 저주받은 악타이온은 사슴으로 변하게 되고 자신이 키우던 개에게 물려 죽는다.

흥미로운 것은 아르테미스가 순결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모두 부정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아르테미스는 '출산의 신'으로 여겨졌다. 태어나자마자 쌍둥이 동생 아폴론이 무사히 태어나도록 어머니를 도왔다는 아르테미스는 이후 그리스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찾게 되는 출산의 신이 되었다. 루이미셀 반 루(Louis-Michel van Loo)의 회화 〈풍경 속의 아르테미스〉에서 그녀의 머리 위에 놓인 '초승달'은 여성의 월경을 상징하며 출산의 신으로 여겨졌던 아르테미스의 면모를 보여준다.[6]

오장환은 이처럼 순결하지만 잔인하고 아름답지만 범접할 수 없으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출산을 관장하는 그녀의 고귀하면서도 관능적인 미와 힘을 숭배했다고 볼 수 있다. 숭배의 이면에 부재가 존재한다고 할 때, 아르테미스의 미와 힘 대신 오장환에게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일까. 시를 보면 그것이 식민지 지식인의 쓸쓸함과 슬픔임을 알 수 있다.

이슬비 내리는 밤 풍경은 시인에게 내면화되어 '저 멀리서' 또는 '더 가까이서' 그리고 '오장'의 물소리로 점점 구체화된다. 시인은 오늘도 '말 탄 근위병'들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요컨대 권력의 감시가 만연한 곳에서 '기이한 손님'이 되어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순결)를 지켜내고야 마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기다리는 동안 시인 오장환은 식민지 지식인의 슬픔과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다. 제국에 대항할 수 없었던 시인은 특히나 자신의 가치를 폄훼하는 자를 가차 없이 복수했던 아르테미스의 결기를 숭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 아르테미스와 시 〈헌사〉를 함께 읽다 보면, 시집 《헌사》의 표지 그림에 대한 독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 시집의 표지 전체를 구성하는 추상적인 문양들은 그리스 신화 속 아르테미스를 상징하는 활과 화살, 달 등을 추상적으로 디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대를 넘어, 시와 책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한 조선 최고의 북아티스트 오장환의 특별함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오롯이 보존되어 있다.

6) 아폴론과 쌍둥이로 레토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났다. 제우스가 레토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안 헤라는 레토에게 해가 비치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내렸고, 이에 레토는 바다에 섬 하나를 만들어 그곳에서 아르테미스를 낳게 된다.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아르테미스는 동생 아폴론이 태어나도록 어머니 레토를 돕는다. 이러한 출생으로 인해 아르테미스는 '산파'로서의 지위를 갖는 출산의 신이 되었다 (이주헌, 《신화의 미술관》, 아트북스, 2020 참조)

04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다

지식의 나눔으로 성장하는 도서관

'경주시립도서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경주시립도서관

경주는 도시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보물을 품은 경주는 국내에서도 손꼽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볼거리가 가득한 경주에는 지역의 역사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도서관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70년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함양에 힘쓰며 평생학습의 기반을 조성한 경주시립도서관을 찾았다.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도서관

올해 개관 70주년을 맞은 경주시립도서관은 1953년 7월에 경주읍립도서관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해방 후 한국 최초의 읍립도서관이었으며, 개관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로 입관료를 받지 않고 자료 이용을 위주로 하는 현대식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도입한 선진적인 도서관이었다. 이후 1989년 9월 지금의 황성동에 신축 개관됨에 따라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하였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천년고도 경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라는 특색을 살려 경주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12월 신라역사문화 관련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고즈넉한 한옥의 멋을 품은 경주시립도서관은 연면적 3,673.5m^2 규모의 단독 2층 건물로 조성되어 있다. 지하 1층에는 강의실과 휴게실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회의실, 보존서고, 열람실, 사무실, 관장실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향토자료실, 자료정리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는 20만여 권의 도서자료와 2만여 권의 비도서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지난 9월 개관 70주년 기념식 행사를 통해 도서관 마당과 인근 황성공원에서 책과 사람이 함께하는 '책인(冊人)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경주의 역사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언제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경주시립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 하반기에는 11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개관 70주년을 맞이한 경주시립도서관

향토자료실 입구 모습

'인생을 한 편의 다큐처럼' 프로그램

먼저 성인 대상으로는 시를 통해 정서적 지평을 넓히는 '가을, 시(詩)에 물들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그림책 출판하기', 생활 속 다양한 독서 활용법을 배우는 '독서지도사 2급', 생애주기별로 함께하는 '부모를 위한 책육아', 책 속 명언을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빨강머리앤 & 감성 캘리와 만나다', 실제 방송된 영상을 통해 기록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을 한 편의 다큐처럼'이 진행 중이다. '인생을 한 편의 다큐처럼'은 소재의 다양성과 접근방식을 알아보고, 재연드라마를 포함한 다큐멘터리 제작과정에 대해 배운다. 또한 인생과 다큐멘터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직접 방송작가가 되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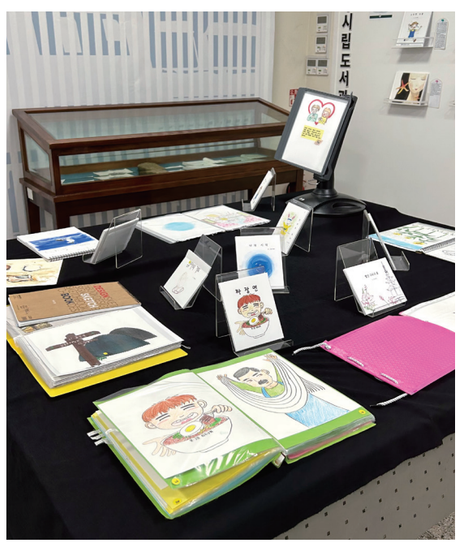
6~7세 대상으로는 토탈공예로 지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책놀이 공작소'와 노래와 게임 등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영어에 자신감을 주는 '유아 동화영어'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책과 원예를 접목해 심리적 안정을 주는 '원예 북 가드닝', 만들기 교구로 놀이를 응용해보는 '4차 산업 메이커 융합', 원서를 읽고 문장표현을 익히는 '초등 동화영어'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욱 알찬 구성을 만드는 등 색다른 프로그램 기획에도 열중하고 있다.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만드는 도서관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강사 섭외와 수강생 모집에 고충을 느낀 경주시립도서관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람책'을 통해 강사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람책은 '독서,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문해교육, 교양/취미'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강사들의 정보를 DB화하여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공식 SNS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및 행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했던 도서관 프로그램 중에서도 수강생들에게 가장 인기를 받았던 프로그램은 '출판' 관련 수업이다. 특히 올해 6월에 '6주 작가 되기 책 쓰기 프로젝트'를 함께한 참여자들은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풀어내며 그 시간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한 참여자는 "이런 문화의 장을 펼칠 좋은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도서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업을 듣는 동안 행복했다"라며 소감을 보내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그림책 출판하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처럼 경주시립도서관은 그림책, 수필 등 다양한 책 출판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에서 책을 만드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림책 출판하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삶이 풍요로워지는 문화공간을 만들어가다

경주시립도서관은 경주의 역사, 지리, 사회, 문화, 인물 등을 주제로 하는 도서를 선정하여 그 저자를 초청해서 강의를 들어보고, 토론을 진행하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인 '도서관 문화학당'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도서관 문화학당은 지역주민에게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황성공원 안에 도서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황성공원에는 도서관과 함께 무인 도서관인 숲 속 책쉼터가 있어 누구나 공원을 산책하며 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순한 지식의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책 속 지식을 나누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이 경주시립도서관의 목표다. 오랜 역사를 지닌 경주시립도서관에는 지역주민들의 무수한 꿈과 이야기가 들어 있다.

황성공원 안 숲 속 책쉼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그려나갈 경주시립도서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그림책 출판하기' 참여자

윤혜정 님

"유년시절에 꿈이었던 작가. 늘 어렵게만 생각했던 그 꿈을 그림책 출판 수업을 통해 도전하고 실현해 볼 수 있어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어느새 '나도 그림책 작가'가 되었습니다. 개인 소장본이지만 올해 칠순을 맞이한 친정어머니를 위한 선물이라서 첫 그림책 출판으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한 편의 다큐처럼' 참여자

배정민 님

"이번 강의를 통해 울산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왔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서 환경과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주변과 환경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끼치는 사회적 영향력과 정서적 유대감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LIBRARY INFORMATION

경주시립도서관

이용 자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열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휴관 매주 월요일, 국가지정 법정공휴일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431-12

054-779-8891

01

번화한 도시에 숨겨진 작은 진주

'덴마크 코펜하겐 중앙도서관'

글, 사진 조금주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덴마크어로 '상인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쾨프마네하픈(Køpmannæhafn)'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코펜하겐은 국회, 정부, 왕궁이 모두 있어서 덴마크의 문화 경제 및 정부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코펜하겐에는 110년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간직한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이 있다. 매년 약 300만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덴마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화시설 중 하나인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을 소개한다.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을 위한 도서관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의 역사는 1885년 코펜하겐 시립도서관 서비스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도서관인 왕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교육받은 계층을 위한 도서관이었다. 덴마크의 도서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대중들의 독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필요성이 꾸준히 커져갔다. 시 의회가 6개의 코펜하겐 시립도서관과 2개의 열람실 설립을 결정했을 때, 이는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해외, 특히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을 모델 삼아 1885년 코펜하겐 시립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도서관 이용 규칙은 매우 엄격했다.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달에 15센트를 지불해야 하며, 출입증이 있어야 했다. 한 번에 한 권의 책만 빌릴 수 있었고, 운영시간도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이용자 수는 많이 증가했다.

이후 코펜하겐 시립도서관 6곳의 행정과 관리를 책임지는 중앙도서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13년에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이 문을 열게 되었다. 점차 도서관은 가장 규모가 크고 전문화된 물리적 장서 컬렉션과 개별 주제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사서 직원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 장서 수는 약 2,000권에 불과했는데 80년이 지난 1993년에는 약 90만 권에 달했다.

현재 도서관이 자리한 건물은 원래 묄러 앤 란슐츠(Møller & Landschultz)라는 사무용품 회사를 위해 설계된 곳이었다. 인테리어 가구점으로 변경되어 운영되다 1980년경 가구 판매가 중단되자, 기존의 코펜하겐 구시가지 쿨트로벳 광장(Kultorvet)[1]에서 1993년에 코펜하겐 중심지이자 현재 위치인 크리스탈게더(Krystalgade)[2]로 이전하여 개관했다. 이전 건물의 기본 구조와 건축 레이아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7,000m²에서 약 1만m²가 조금 넘는 규모로 확장됐다.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도서관

2010년부터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물리적 현대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소음저감 에스컬레이터, 학습 공간, 이벤트, 드롭인센터, 셀프서비스 등의 현대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틀을 만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도시의 다른 문화 기관 및 문화생활과의 파트너십에도 개방적이다. 오늘날 사서들은 학교로 찾아가 정보검색과 자료 비평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새로운 영감의 기회, 시민을 위한

1) 석탄시장(Coal Market)을 의미한다
2) 도로명으로 Crystal Street를 의미한다

02

01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자연채광을 끌어 들인 개방형 설계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02 시내 중심가에 자리한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좋다

디지털 서비스 지원, 다양한 문화행사 제공으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 제공 기관 중 하나가 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모든 연령대의 독자를 위한 다양한 책으로 가득한 5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붕이 있는 안뜰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마주보고 있다. 1층은 예술, 문학, 음악 자료 섹션이 있는 문화 공간으로, 갓 구운 크라상과 커피를 즐기며 다양한 외국신문을 읽을 수 있는 데모크라틱 커피(Democratic Coffee) 카페가 있고 내부에는 대출과 반납 분류기계가 설치돼 있다. 2층은 소설, 언어와 전기 섹션, 예약자료실, 그리고 회의실, 3층은 어린이 섹션, 4층과 5층은 지식 섹션이다. 인문, 사회, 지리, 기술, 자연, 의학자료는 4층, 그리고 역사자료는 조용한 5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서, 놀이와 학습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실, 'LÆS'

3층의 LÆS(영어로 Lead)는 코펜하겐에서 가장 큰 어린이자료실로, 어린이들의 독서습관 및 언어습득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독서와 놀이 및 학습을 연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실이다. 입구부터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다. 1층 엘리베이터 옆에 유모차 주차장이 배치되어 있다. 어린이실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 겉옷, 가방은 잠금장치가 있는 물품보관소에 두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판, 기저귀통이 마련되어 있다. 자료실 내에는 집에서 가져온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다.

0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과 독서를 지원하기 위해 1,000m^{2}의 공간에 10개의 다양한 활동구역을 마련해 어린이들이 책을 탐구하고 발견하며 신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자료실에서는 더 많은 어린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패턴 컬렉션 '처음 100권'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자료실에서는 이 컬렉션을 '좋은 책 더미'라고 부른다. 신간과 오래된 고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초 처음 100권이 선정·발표된 이후, 이 도서들에 대한 대출이 매우 활발하다.

LÆS는 어린이들이 책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한다. 우선 자료실 입장에 앞서 신발을 벗게 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고 숨고, 탐험하고, 집중할 수 있게 충분히 넓은 장소와 모서리가 없는 부드러운 목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매우 다양한 분야의 새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아이들 눈높이에서 도서의 표지를 전면으로 향하게 하는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많은 표지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상호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서가들이다. 어린이실 전용 직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유니폼을 입고 있다. 이들은 주제 전문가들과 협력 활동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책을 찾도록 영감을 주며, 언어 중심의 게임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직원의 활동은 책과 언어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어린이들에게 추가 경험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활동은 어린이의 잠재력을 강화시켜 단순한 도서관 방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다.

덴마크에서 가장 큰 도서관 네트워크

코펜하겐 시립도서관은 본관인 코펜하겐 중앙도서관, 19개의 분관 도서관, 그리고 코펜하겐 대학병원과 코펜하겐 교도소 내 2개의 특수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코펜하겐 시립도서관은 약 26만 7,000명의 회원을 가진 덴마크에서 가장 큰 도서관 네트워크다. 코펜하겐 시 인구가 약 65만 2,000명임을 감안하면 지역 인구의 약 41%가 도서관 회원인 셈이다.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코펜하겐 시립도서관 전체 소장 장서는 인쇄자료 약 81만 8,500권, 전자자료 6만 3,000종이다. 다양한 종류의 실물도서 외에도 전 세계 신문과 잡지를 보유한 디지털 뉴스스탠드 프레스리더(PressReader) 및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잡지 가판대 지니오(Zinio)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전자책, 오디오북, 사전은 물론 다양한 외국잡지 및 신문의 방대한 디지털자료를 제공한다. 인쇄자료와 오디오북의 대출량은 연간 약 199만 9,000권이며, 전자자료는 약 70만 8,000권으로 총 283만 6,000권의 대출건수를 보인다. 코펜하겐 시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종일종사노동자(FTE) 수는 246명이다.

공동체와 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설립된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다양한 사교행사를 주최하며 도서관 방문객은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IT 및 법률 상담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두 번 '웰컴 투 덴마크(Welcome to Denmark)'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로운 이민자들이 덴마크의 문화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을 배우며,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법률협회인 '코벤하벤스케 변호인단(Københavnske Advokaters Retshjælp)'에서 국적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도서관의 IT 카페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모든 시민에게 지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오래된 공공도서관 핵심 기능에 충실하다. 모든 종류의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서비스 데스크,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 공간, 디지털 자료 제공, 학생들의 학습 지원과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기관이다. 사람들에게 사색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독서동아리가 모여 토론하는 곳.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비공식적 모임장소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

03

04

03 도서 표지를 전면으로 디스플레이하여 아이가 스스로 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04 코펜하겐 중앙도서관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놀고, 탐험하고, 집중할 수 있게 충분히 넓은 환경을 제공한다

| 조금주 |

도서관 건립 컨설팅, 도서관 운영자문, 사서 교육 등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넥스트 라이브러리(Next Library)〉의 대표. 틈날 때마다 세계 각국의 도서관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 뒤 훌쩍 배낭을 짊어지고 그곳들을 찾아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의 도서관을 꿈꾸고 있다.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세상의 도서관들》(2020) 등을 집필했다.

여행 더하기

덴마크 코펜하겐 중앙도서관
Krystalgade 15, 1172 København, Denmark
월~금 오전 8시~오후 8시
토~일 오전 9시~오후 4시
+45-33-66-30-00

여행 더하기 1

덴마크 국립박물관
덴마크의 역사, 민족, 문화에 관한 소장품 전시
Ny Vestergade 10, 1471 København K, Denmark
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휴무
+45-33-13-44-11

여행 더하기 2

글립토테크 미술관
19세기 프랑스와 덴마크 작품이 있는 미술관
Dantes Plads 7, 1556 København, Denmark
화~일 오전 10시~오후 5시
목 오전 10시~오후 9시
월요일 휴무
+45-33-41-81-41

K-도서관의 풍모를 보여주는 한옥도서관

글 박미숙 **사진** 각 도서관

유려하고 늘씬한 처마. 구불구불 흘러가는 기와. 색색의 영롱한 단청. 아름다운 선과 단아한 색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한옥은 세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고유의 자랑거리다.
'돌담을 따라 걷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이 도서관이더라.'
'도서관' 하면 떠올리는 네모반듯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서까래 아래 단정하게 놓인 책꽂이에 책이 가득하고, 격자무늬 창문 너머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이곳.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과 운치 가득한 한옥도서관을 만나보자.

윤동주 시인의 언덕 아래 청운문학도서관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지붕 기와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수제 기와와 돈의문 뉴타운 지역에서 철거된 한옥 기와 3,000여 장을 재사용해 만든 한옥도서관. 윤동주 문학관을 지나 시인의 언덕을 내려가면 만날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은 서촌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는 핫플레이스다. 낮은 도서관 담장을 지나면 만날 수 있는 정자 안의 작은 폭포는 바라만 봐도 마음의 시름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도서관 안에는 한옥의 운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좌식열람실이 있다. 한옥의 정취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은은한 조명 아래 앉아 책을 읽고 있자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옮겨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청운문학도서관은 문학 특성화도서관이기도 하다. 과거 서촌에 많은 소설가와 시인이 살았다는 점을 잘 살려 장서의 특성을 정한 결과다. 창작실과 세미나실이 따로 있어 다양한 문학 관련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인왕산 자락 한 켠,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청운문학도서관에서 한옥의 풍경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책 한 권 읽어보는 건 어떨까? 시 한 자락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냉큼 종이를 꺼내 써 내려가도 좋을 것 같다.

청운문학도서관 전경

청운문학도서관 열람실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마당에서 즐기는 툇마루 음악회

은행나무 벗 삼아 즐기는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인왕산 자락 아래 청운문학도서관이 있다면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자락 아래 방학동에는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이 있다. 600년이 넘는 은행나무 옆에 자리 잡은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은 2022년 문을 연 새내기 도서관이다. 바깥 모습은 한옥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고 실내는 현대식 건물에 익숙한 이용자들을 위해 안락한 의자 등을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은 달라진 도서관 흐름 가운데 하나인 '개방'과 '소통'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여닫이 창문을 열면 중앙정원과 앞마당 정원을 만날 수 있고, 독서대 앞창을 열면 원당샘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되었다. 마치 원당샘 공원은 커다란 마을이고, 그 안에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은 하나의 집처럼 느껴진다. 동네를 거닐다 도서관을 기웃거릴 수도 있고, 도서관을 기웃거리다 초록빛 가득한 공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개방감은 도서관으로 산책 가는 느낌을 갖게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 속에 원래 있었던 것 같은 원당마을한옥도서관은 주변에 있는 간송옛집, 함석헌 기념과 더불어 김수영 문학관까지 아우르는 도봉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꿈꾸고 있다.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자료실

야경이 아름다운 연화정도서관

연못 한가운데 연꽃향 가득한 연화정도서관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에는 연못 한가운데 위치한 멋스러운 한옥도서관이 있다. 덕진공원의 연화정을 재건축해 만든 한옥도서관인 연화정도서관(전북 전주시 덕진동 소재)이 그 주인공이다. 연화정도서관은 연화교 중간쯤 기역 자 형태로 구성된 연화루와 한옥 건물인 연화당이 본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옆에 바로 누각이라니. 한옥도서관이 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진 셈이다. 연화정도서관은 내부도 고풍스럽다. 안내데스크를 빼고는 모두 낮은 서가로 개방감을 넓혔으며 격자무늬 창문과 천장의 서까래와 같은 나무 재질의 가구들이 모두 편안하게 조화를 이룬다. 한쪽에는 평상을 놓고 전통적 소품을 곳곳에 잘 배치하여 도서관 안에 있으면 어느 옛집에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덕진연못에 연꽃이 필 때 연화정도서관에 앉아 책 한 권 읽고 있노라면 창문 너머 보이는 연꽃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취할 수 있다.

'점·선·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주제로 나열된 연화정도서관 책들

연화정도서관에 가면 한옥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점·선·면 그리고 여백'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책을 2천여 권을 만날 수 있다. 한옥의 고혹적인 매력과 더불어 한국의 미를 노래하는 책들을 벗 삼을 수 있는 연화정도서관에서 우리나라 전통미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다.

한국적인, 가장 세계적인 도서관

유럽의 도시를 거닐다 보면, 그 나라의 고전적인 건축물을 자주 만난다. 르네상스 시대 누군가가 새겨놓은 조각상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오래된 스테인드글라스도 마주치곤 한다. 건축은 시대를 담기도 하고 그 나라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고유의 건축물인 한옥의 아름다움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런 한옥이 도서관을 품을 때는 단순히 건축양식을 가져온 것으로 말할 수 없다. 도서관은 시민의 일상 공간이면서도 역사와 시대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를 가장 잘 담았다는 한옥, 한국의 지적 유산을 가장 잘 담아낸 한옥도서관. 한옥도서관은 한국의 미와 지적유산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한국적이자 세계적인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 박미숙 |

고양시립 일산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그림책으로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도서관에 간 외계인》,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손바느질로 만나는 그림책 주인공》 등이 있다.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한국 역사를 따라 걷는 시간
한국사 분야 대출 동향

36 오늘의 만남
안전을 위해 불길을 걷다
소방관 최규영

40 K-인문학
'마스크걸'
가면의 사회학

44 고전 드라마
잔혹한 역사와
예쁜 사랑의 만남
알렉산드르 푸시킨 《대위의 딸》

48 오감독서
기적을 부르는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오가와 이토 《달팽이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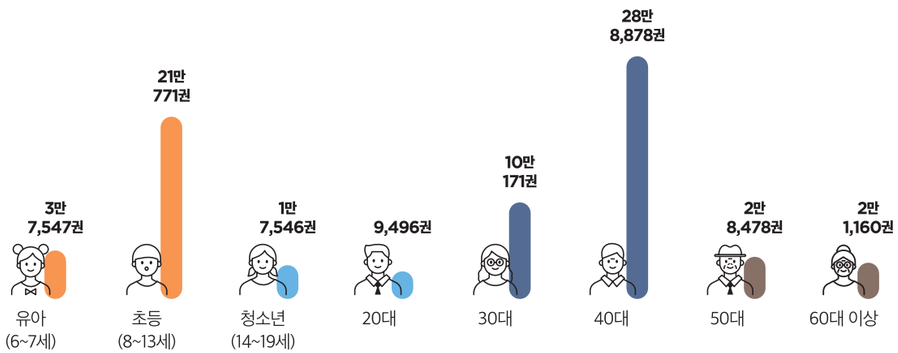
한국 역사를 따라 걷는 시간

한국사 분야 대출 동향

우리는 역사를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개인의 삶과 나아가 우리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역사가 아닐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따라 걷는 시간을 가져보자. 세대별로 최근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한국사 분야 대출 동향'을 함께 알아본다.

자료출처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 **분석기간** 2022. 09. 01.~2023. 08. 31.

세대별 한국사 분야 대출량(1~100위 기준)



유아, 초등 세대별 인기대출도서

유아(6~7세)

1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	설민석, 스토리박스 지음 | 정현희 그림 | 단꿈아이 | 2023
2위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한국사 퀴즈 시리즈	한날 지음 | 파란정원 | 2021
3위	구해줘 카카오프렌즈 한국사 시리즈	최태성, 조윤호 지음 | 도니패밀리 그림 | 메가스터디북스 | 2019

초등(8~13세)

1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	설민석, 스토리박스 지음 | 정현희 그림 | 단꿈아이 | 2023
2위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시리즈	최태성 지음 | 김옥재 그림 | 다산어린이 | 2023
3위	읽으면서 바로 써먹는 어린이 한국사 퀴즈 시리즈	한날 지음 | 파란정원 | 2021

최근 1년간 세대별 한국사 대출량을 살펴보면 40대가 28만 8,878권을 차지하며 1위였고 20대가 9,496권으로 가장 적었다. 유아와 초등, 청소년 세대 인기대출도서를 살펴보면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가 유아, 초등, 청소년 전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현직 초등 교사가 추천하는 한국사 필독서로 선정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세대별 인기대출도서

청소년(14~19세)

1위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	설민석, 스토리박스 지음 | 정현희 그림 | 단꿈아이 | 2023
2위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지음 | 최준석 그림 | 세계사 | 2016
3위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김재원 지음 | 빅피시 | 2022

20대

1위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김재원 지음 | 빅피시 | 2022
2위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설민석 지음 | 최준석 그림 | 세계사 | 2016
3위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21

30~40대

1위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김재원 지음 | 빅피시 | 2022
2위	벌거벗은 한국사: 본격 우리 역사 스토리텔링쇼	tvN story 〈벌거벗은 한국사〉 제작팀 지음 | 프런트페이지 | 2022
3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시리즈	박시백 지음 | 휴머니스트 | 2021

50대 이상

1위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	김재원 지음 | 빅피시 | 2022
2위	이순신의 바다: 그 바다는 무엇을 삼켰나	황현필 지음 | 역바연 | 2021
3위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21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부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가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책은 역사학자 김재원이 쓴 한국통사로 역사가 어렵다는 생각을 바꿔주고 한국사의 흐름을 쉽게 알려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시리즈물을 좋아하는 청소년과 달리, 성인은 대체로 한국 역사를 한 번에 보여주는 단편의 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 최규영 |

글 쓰는 소방관. 글쓰기 플랫폼에 '시골 소방관 심바 씨'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다. 만 35세에 늦깎이 소방관이 되었지만 고참 같은 신입처럼 구조에 대한 사명감을 안고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다운 소방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를 썼다.

안전을 위해 불길을 걷다

소방관 최규영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세상과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소방관 최규영. 올해 그는 소란하고 웃음 나는 시골 풍경 속에서 사람 냄새 나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최규영은 옷에 피 묻히는 직업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삶과 죽음을 오가는 사고 현장에서 고인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깊이 애도하며 다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뜨겁게 지피는 소방관 최규영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원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조대원 최규영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파견을 와 있습니다. 몇 달 전까지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끄고, 계곡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산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던 구조대원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도청 건물에서 일반 공무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소방행정사라는 전라북도 소방의 역사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료수집 차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무리되면 저는 또 어떤 소방관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02

소방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소방관이 꿈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20대, 30대를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때 직업군인을 생각하며 특전사에 입대를 했었고, 전역 후에는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환학생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인생 전반을 바꾸는 계기를 맞았고, 비정부기구(NGO)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쭉 살았습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극지마라토너나 호주 악어농장 외국인 노동자가 된 것도 모두 그 목표를 위해 제 모습을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기아대책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NGO 설립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위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실패가 많았습니다.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저의 다짐과 인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실패가 저에게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일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가 고민했고 주저함 없이 '소방관'을 택했습니다.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을 길을 택한 거죠.

03

소방관은 위험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실제 업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힘들고 위험한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출동의 대부분은 위험이 커지기 전의 상황이어서 얼른 현장 조치를 하고 돌아옵니다. 냄비가 타서 주택화재가 되기 전에 도착하거나, 들풀의 불이 산불이나 하우스화재로 번지기 전에 조치를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소방관이라고 하면 불만 끄는 줄로 알지만, 현장 파트는 크게 불 끄는 경방팀, 다친 사람들을 응급 처치하는 구급팀, 사람들을 구해내는 구조팀, 상황을 총괄하는 지휘팀 등으로 나뉘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화재나 재난 말고도 교통사고나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등등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출동합니다.

04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공감능력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대부분 도움이 되지만 때론 이 부분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나 자살 시도와 같은 사고 현장에 가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점점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해지는 서구 사회와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 현장을 가면

그분들이 홀로 외롭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을 상황을 눈으로 보고 오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홀로 긴 세월을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이 쌓일 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05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어느 여름 할아버지 실종 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셨는데 집을 나와 산 쪽으로 향한 후 소식이 끊겼다는 신고였어요. 소방서는 재빨리 긴급통제단을 꾸려 할아버지 수색작업에 돌입했죠.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곰보빵 하나와 생수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넘쳤어요.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비가 왔는데 비가 오면 실종자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5일 차에 다시 수색작업을 하는데 사람들 눈에서 희망이 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실종자 가족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우린 저수지나 수로 같은 사망할 수 있는 장소들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찾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9일 차에 접어들어 할아버지는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시멘트 농수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다소곳이 누워 돌아가신 채였습니다. 옆에는 입고 있던 옷을 곱게 접어 놓고 마치 죽을 때를 알았던 사람처럼요. 그때 그 어려운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계곡구조훈련을 위해 나무 상단에 로프를 설치하는 최규영

06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현장업무가 주를 이루다 보니 일반 회사에는 없는 소방관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체력단련을 위해 저녁시간에는 마음껏 체력단련장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체력단련도 업무의 연장이라서 소방관들이 모여서 운동하기도 하고 역기를 들면서 더 큰 근육을 만들기도 해요. 퇴근하고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업무시간에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헬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최고의 매력이 아닐까요.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팀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훈련하고, 웃다 보면 끈끈한 관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게다가 진급하고 인사이동을 하면 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퇴직할 때까지 본다는 생각에 유대감이 강합니다. 그런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도 이 직업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7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방관이 되는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 응시 방법에 따라 체력과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방관이 되려면 엄청난 체력과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험이 쌓이거나 더러 소방관이 되어 직업인으로 지내며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 소방관의 옷을 입고 저의 동료가 먼저 되어주세요. 그 후에 본인의 역량을 살려 어떤 소방관이 될 것인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쓰는 소방관'이 된 저처럼 말이죠.

08

신간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유래 없던 30중 추돌 터널 사고를 입사 한 달 만에 겪게 됐어요. 큰 충격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구조대장님의 지시로 기고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고문이 지역 신문에 실리고 칭찬의 전화가 여기저기서 왔어요. 연고가 없는 남원에 살다보니 마음의 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불을 끄고 와서 한 편, 돼지를 쫓아가 잡고 와서 또 한 편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글쓰기 플랫폼에 올렸더니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소방관의 옷을 입고 보니, 이전에 제가 생각했던 '영웅'은 없었고, 그저 그 일을 담담하게 해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육아 고민, 대출금 고민, 가정 문제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고민들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었어요. 다만 사고 현장의 피폐함, 눈앞에서 돌아가신 고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마음 한편에 더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 책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소방관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평범하고도 용감한 한 소방관의 삶이 담긴
《시골 소방관 심바 씨 이야기》

09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특정 누군가가 읽기를 바라며 쓰진 않아서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책이 세상에 나오고 뜻밖의 독자 라인이 생겼어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진행하는 '2023년 상반기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에 선정되면서 청소년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권정책연구소의 인권도서로 선정돼서 경기도 공무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고 왔어요. 연구원 분들이 인권도서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 소방관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신 분들은 다들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한 소방관분이 제 책을 읽고 본인도 비슷하게 느낀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이 잊히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10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이나 예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를 크게 외치며 대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건물에 있어도 화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경보가 되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둘째, 항상 대피로와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나도 살고 내 동료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실로 내려갈 땐 더욱 필요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대피로 계단으로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 중국 후난성 창사 42층 건물 전체를 태운 화재의 원인이 다름 아닌 '담배꽁초'였다는 것이 당국의 조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 합니다.

11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제가 글을 쓰다가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현장을 오가며 느끼고 깨닫는 것들을 잘 기록해서 은퇴할 때까지 남긴다면 소방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에게도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9일은 소방의 날로 지정되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한번쯤 화재의 날들을 떠올리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죠. 저희 소방관들에겐 고기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더 고생하자는 의미로 회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관 최규영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걸' 가면의 사회학

글 정덕현 **사진** 네이버웹툰 / 매미, 희세 / 마스크걸

가면에는 가림과 드러냄의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쾌걸 조로〉나 〈브이 포 벤데타〉 같은 작품 속에서의 가면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도구다. 그런데 정체를 숨기는 이유는 독재자 같은 물리적인 폭압과 맞서 혁명과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서구의 슈퍼히어로들이 정체를 가리기 위해 쓰곤 하는 것처럼, 가면은 전 세계 어디에나 등장할 정도로 보편적인데, 우리에게도 이미 '탈놀이'를 통해 양반들의 허위를 풍자하던 연희패들의 마당놀이로 익숙하다. 이 가면을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가져와 우리 식의 해방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 바로 허영만 화백의 만화 〈각시탈〉이다. 또한 가면은 혁명이나 저항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려는 목적으로도 쓰인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속 주인공 에릭은 흉측한 얼굴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쓴 채 숨어서 생활한다. 즉 여기서 가면은 그 흉측한 얼굴 때문에 생겨나는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 가면을 쓰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복면가왕〉은 〈오페라의 유령〉의 한국식 예능 버전 같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 프로그램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 관객들에게는 선입견을 제거해주고 또 가수에게는 보다 노래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매미, 희세 작가의 웹툰 〈마스크걸〉의 가면은 어떤 의미에 가까울까.

가면을 써야 살아가는 사람들

〈마스크걸〉은 어려서부터 춤추는 게 좋았고 그런 자신을 보며 쳐주는 박수가 좋았던 김모미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잘 빠진 몸매와 상반된 얼굴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원했던 연예인의 꿈을 접고 평범한 직장인이 된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잊지 못하는 김모미는 밤마다 마스크를 쓴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며 여신으로 추앙받는다. 낮에는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외모 평가가 일상화된 직장에서 주눅 들어 살아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서는 밤이면 박수갈채를 받는 김모미. 이 문제적 인물이 말해주는 건 가면을 써야 살아갈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 세상에 놓인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모미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를 따라다니며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는 주오남은 외모지상주의 세상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치 〈마스크걸〉은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처럼 시작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알고 보면 주오남은 자신이 하는 일련의 변태스러운 행위들을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가려놓은 채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는 김모미를 지키겠다며 한 자신의 행동들을 사랑이라 포장하지만, 그 역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비뚤어진 욕망에 휩싸인 진짜 정체가 드러난다.

낮에는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외모 평가가 일상화된 직장에서 주눅 들어
살아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서는
밤이면 박수갈채를 받는 김모미.

이처럼 〈마스크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선악으로 단순히 구분되지 않고 저마다의 비뚤어진 욕망들로 자신들만의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이들이다. 살해된 주오남의 엄마 김경자가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종교의 계시까지 덧씌워진 가면을 쓴 채 실상은 자신을 위한 복수에 불타는 인물이라면, 성형한 김모미와 외모가 닮은 김춘애(그 역시 성형을 했다)의 기둥서방으로 살아가는 최부용 같은 인물은 과거

모미는 회사에서도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아이돌이라는 가면을 쓰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싶었지만 일진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물이다. 또 김모미가 수감생활을 했던 교도소에서 만난 안은숙은 수감자 신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교도소장인 신성자가 굽실대는 인물로 병에 걸린 하나뿐인 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이다. 즉 〈마스크걸〉에서의 가면은 끔찍한 진짜 정체를 숨기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장하는 도구다. 물론 김모미처럼 실물 가면을 쓴 채 그런 이중적인 면을 보이는 이도 있지만, 주오남이나 김경자, 최부용, 안은숙처럼 진짜 가면은 아니지만 가장된 삶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마스크걸의 방송을 즐겨보던 주오남은
마스크걸의 실체를 알게 된다

자신의 진짜 정체가 탄로 날까 봐 두려워하는
모미의 모습이다

〈마스크걸〉에서의 가면은
끔찍한 진짜 정체를 숨기고
그럴듯한 모습을 가장하는 도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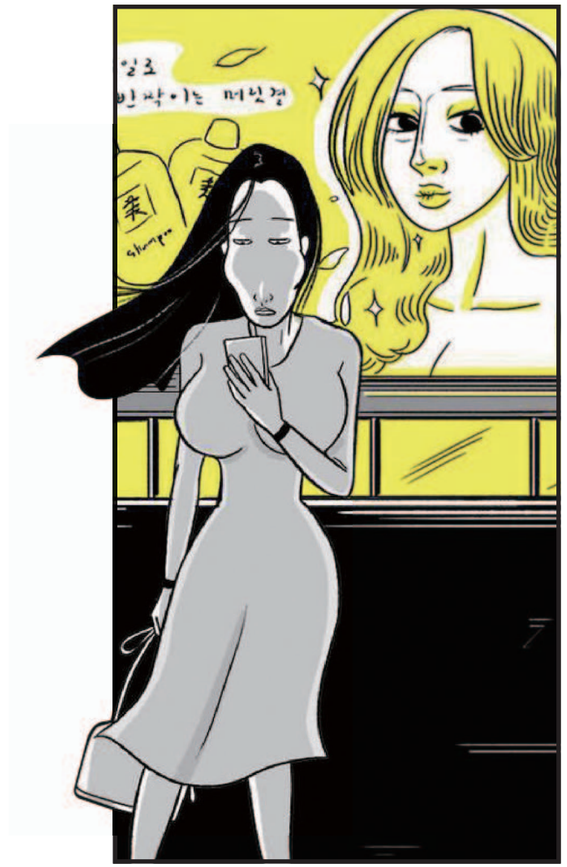
멀티 페르소나 시대, 가면의 이중적 의미

결국 〈마스크걸〉이 가면이라는 장치를 통해 에둘러 꼬집고 있는 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다. 외모지상주의가 외모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 다양한 외모들을 그대로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서 모두가 똑같은 '성형화된' 기준을 추종하고 따르는 과정에서 이 사회는 왜곡된 욕망의 비극을 낳는다. 오로지 자기 자식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비뚤어진 모성애의 비극을 낳고, 왜곡된 성의식을 사랑이라 포장하는 삶이 범죄를 낳는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사회가 기준점으로 제시하는 어떤 모습 사이의 괴리가 만들어내는 욕망의 왜곡이 바로 〈마스크걸〉이 그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는 것이다.

흔히 '부캐(부캐릭터)'라고도 말하는
멀티 페르소나는,
과거 '본캐(본캐릭터)' 하나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됨으로서
그 가능성을 닫아버렸던
시대로부터 벗어나려는 개념이다.

하지만 가면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낸다거나 혹은 미처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능 또한 존재한다. 최근 들어 가면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는 이른바 '멀티 페르소나'로 표현되곤 한다. 흔히 '부캐(부캐릭터)'라고도 말하는 멀티 페르소나는, 과거 '본캐(본캐릭터)' 하나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규정됨으로서 그 가능성을 닫아버렸던 시대로부터 벗어나려는 개념이다. 주로 일의 영역으로 본캐만이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규정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일 바깥으로 나와 다양한 부캐를 통해 그 사람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는 그래서 마치 연기자들처럼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가면들을 써봄으로써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것 또한 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마스크걸〉은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점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욕망 때문에 쓰게 되는 가면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정반대로 하나로 규정되는 나의 모습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가면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멀티 페르소나 가면의 사회 또한 존재한다. 이 양극점의 가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획일된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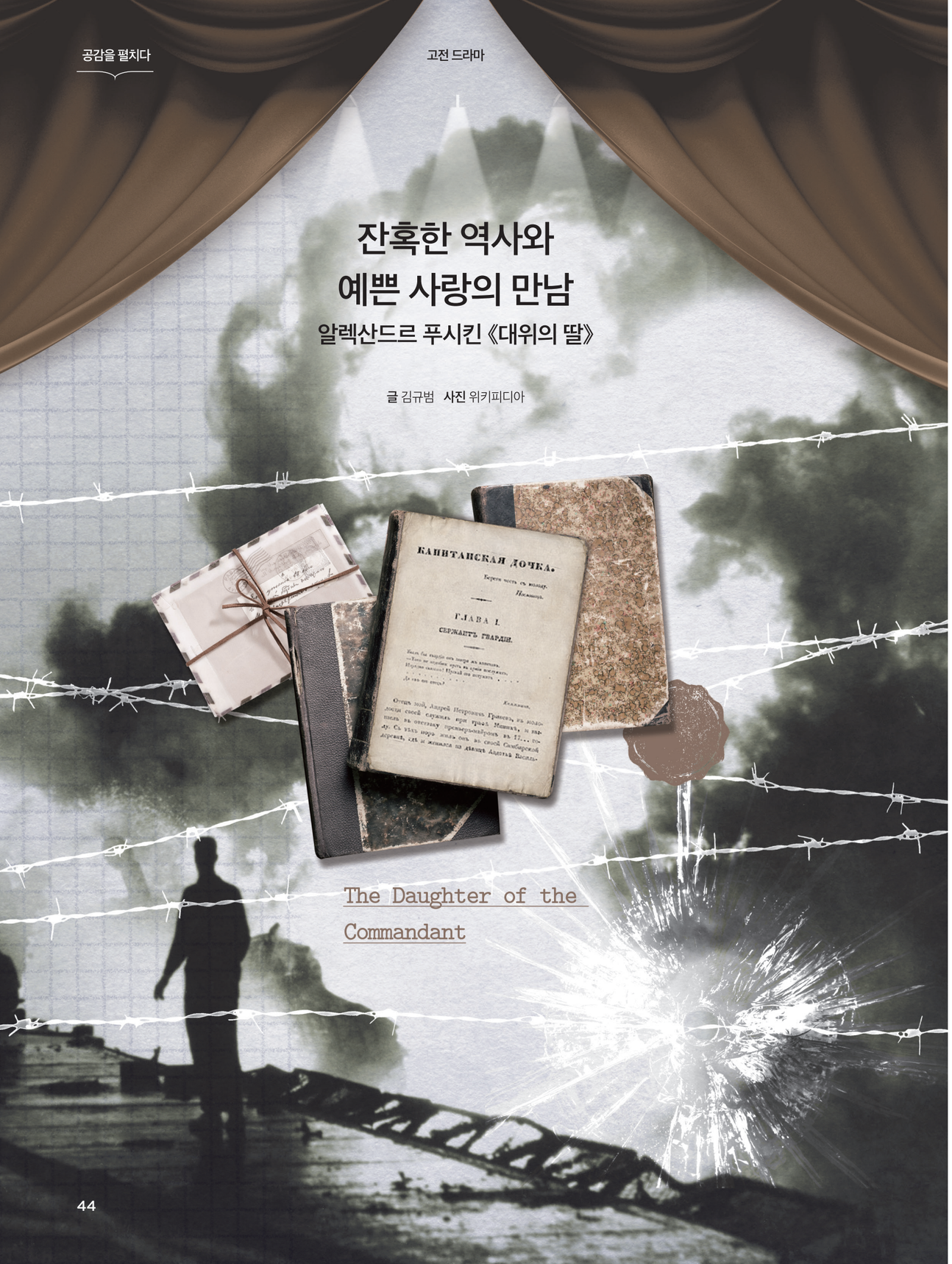

흑백의 모미와 뒤 전광판 속 화려한 모델의
얼굴이 서로 대조된다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팔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잔혹한 역사와 예쁜 사랑의 만남

알렉산드르 푸시킨《대위의 딸》

글 김규범 사진 위키피디아



The Daughter of the Commandant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민란은 군대와의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이 서로 죽이고 죽는 잔혹함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국민 시인' 등의 칭호를 가진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Alexander Sergeyevich Pushkin, 1799~1837)'의 《대위의 딸(1836)》은 1773년 러시아에서 실제 발생한 민란(民亂) '푸가초프의 반란'을 소재로 다룹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잔혹한 역사의 기록'보다는 '예쁜 사랑 이야기'라는 표현과 더 잘 어울립니다. 젊은 귀족 장교의 사랑 이야기를 역사 위에 올려놓은 서술방식을 통해 18세기 후반 러시아 사회의 모습인 문화, 소수민족, 귀족, 민중의 생활상 등을 생생하게 묘사한 전혀 잔혹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1

러시아 제국 지방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안드레이는
장교로 퇴역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에 입대해 변방의
작은 부대로 향한다.

#2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은 안드레이는
한 농부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안드레이는 농부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토끼털 외투를 선물하며
은혜를 갚는다.

#3

무사히 부대에 도착한 안드레이.
그곳에서 미로노프 대위의 딸인
마리야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둘은 약혼을 하게 된다.

#4

그즈음 '푸가초프의 반란'으로 인해
순식간에 부대는 함락하고 마는데…
과연 안드레이는 자신의 목숨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전쟁 속 사랑의 힘

- 인물관계도 -

주인공

안드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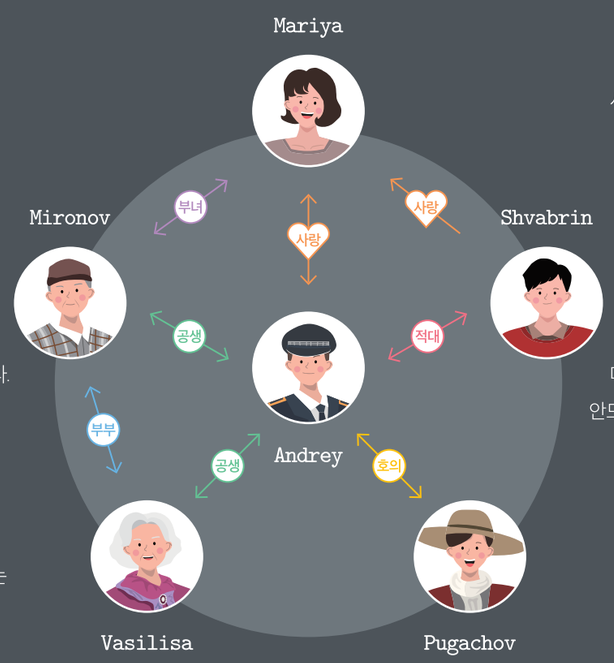
귀족 집안의 장남이자 장교.
첫 발령지에서
미로노프 대위의 딸인
마리야와 사랑에 빠진다.

미로노프 대위

변방 부대의 사령관.
전장에서는 용감하지만
일상에서는 태만한 노병이다.

바실리사

미로노프 대위의 아내.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여장부로 안드레이에게
딸 마리야를 소개한다.



마리야

미로노프 대위의 딸.
시바브린의 구혼을 거절하고
안드레이와의 사랑을
굳게 맹세한다.

시바브린

근위대에서 퇴출돼
변방으로 전출된 장교.
마리야와의 구혼이 실패하자
안드레이에게 결투를 요구한다.

푸가초프

반란의 주인공.
농부 시절 안드레이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작품 읽기 준비운동_푸가초프의 반란

1770년대 러시아를 집권했던 '예카테리나 2세'는 남편 '표도르 3세'를 누르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 34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폭정을 펼쳤습니다. 이에 민중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며 크고 작은 민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그중 황제를 가장 크게 위협했던 사건이 '푸가초프의 반란(Pugachov Rebellion, 1773~1775)'입니다. 이 사건은 농민뿐만 아니라 종교인, 소수민족까지 합세해 일시적으로 거대하게 번졌지만 결국 러시아군에게 진압되어, '푸가초프(1742~1775)'의 공개 처형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대위의 딸》의 작가 푸시킨은 이 사건의 주 무대였던 지역에까지 방문해 관련 자료를 모았고, '국립문서보관소'에 보관된 극비문서까지 열람해가며 《푸가초프 반란사》라는 역사 연구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학적 상상력을 더한 또 한 권의 책, 《대위의 딸》을 발표했습니다.

줄거리 알아보기_반란 속 용감한 사랑

주인공의 이름은 '안드레이', 예카테리나 2세 치하의 러시아 제국 지방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장교로 퇴역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17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첫 발령지인 변방의 작은 부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추운 날씨에 험한 시골길을 지나야 했기에 '토끼털 외투'와 '여우털 코트'로 단단히 몸을 감싸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보라를 만나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를 지나던 한 농부의 도움으로 위험을 벗어난 안드레이는 농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술을 대접하고, 얇은 옷을 입고 있던 농부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토끼털 외투까지 선물했습니다. 농부는 감사를 표하며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인사를 전했고, 안드레이는 무사히 부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생 끝에 도착한 부대의 사령관은 '미로노프 대위'입니다. 작품 제목에 등장하는 바로 그 '대위'입니다. 하지만 미로노프는 나이도 많고 태만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기에 실질적인 부대의 운영은 아내 '바실리사'의 몫이었습니다. 바실리사는 귀족 집안의 장남인 안드레이가 마음에 들어 자신의 딸 '마리야'를 소개시켜줍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드레이와 마리야의 인연은 평탄치가 못했습니다. 부대에 이미 마리야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한 '시바브린'이라는 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바브린의 질투와 방해 속에서도 약혼을 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즈음 시작된 '푸가초프의 반란'으로 인해 순식간에 부대는 함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령관인 대위 부부와 부대 장교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딸 마리야는 신분을 숨기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인공 안드레이가 장교임에도 처형되지 않고 부대 밖으로 쫓겨나는 선에서 목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토끼털 외투 때문입니다. 민란의 주역인 '푸가초프'가 다름 아닌 안드레이가 술을 사주고 옷을 선물했던 그 농부였던 것입니다. 전장에서 안드레이와 재회한 푸가초프가 그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하지만 안드레이는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빠르게 푸가초프에게 투항해 새 사령관으로 임명된 시바브린 때문입니다. 시바브린은 자신의 말 한 마디면 포로로 잡혀있는 마리야의 신분이 들통 나 처형된다는 것을 무기 삼아 마리야와의 강제 결혼을 추진합니다.

결국 안드레이는 죽을 각오로 다시 푸가초프를 찾아갔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이의 당당함을 인정했고 안드레이와 마리야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푸가초프의 반란은 진압됩니다. 하지만 안드레이가 푸가초프와 내통했다는 시바브린의 고발로 인해 안드레이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맙니다. 이번에는 마리야가 안드레이를 구하러 나섭니다. 황제인 '예카테리나 2세'를 직접 만나 사정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이 계획은 예카테리나 2세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령관의 딸과 퇴역한 장교 아들의 사랑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너도 나도 평범한 사람

《대위의 딸》은 중편 분량의 소설로 내용 전개가 빠르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고전문학 작품임에도 읽기가 수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잔인한 살육이 동반되는 민란을 소재로 다루고 있음에도 그 과정은 매우 간략하게 묘사하고, 귀족이나 군인들을 무참히 처형한 '거친 성격의 반란군 우두머리'와 '폭정을 일삼으며 폭력으로 반란을 진압한 황제'라는 수식어를 가진 역사 속 인물들을 '은혜를 아는 꽃미남', '교양 넘치는 부인'이라는 보편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접근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한 사건', '대단한 인물' 등의 평가나 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을 인간 자체로만 바라보는 '평등의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식어를 내려놓고 등장인물을 바라본다면 작품에 등장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작품은 모두를 평범한 인물로 묘사한 것 하나만으로 당시 사회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 김규범 |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기적을 부르는 식당으로 초대합니다

오가와 이토 《달팽이 식당》

글 신수빈(부운디자인)

정해진 규칙도 메뉴도 없이 하루 한 테이블만 받는 식당이 있다. 게다가 주인 여자가 만들어 내는 요리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는데… 저마다의 사연으로 식당을 다녀간 손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은 진짜일까? 산골 어느 한적한 마을,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방문한 손님에게 꼭 필요한 음식을 만들어주는 달팽이 식당의 문을 두드려 본다.

《달팽이 식당》

오가와 이토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 | 2022

달팽이 식당의 탄생

어느 날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자 친구가 떠나버렸다. 재산과 집안 물건들도 몽땅 사라졌다. 소설 속 주인공 링고의 이야기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일까. 갑자기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는다. 매일 밤 남자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요리를 만들었던 링고는 남자 친구와의 추억을 회상하다가, 할머니의 유품인 겨된장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별안간 실어증 환자에 빈털터리가 된 링고는 묵직한 겨된장 항아리를 들고 엄마가 있는 고향 집으로 향한다. 목소리도 잃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가진 건 모두 잃어버렸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다. 오랜 꿈이었던 내 가게를 차리는 것. 링고는 일생일대의 각오를 하고 엄마의 집 창고를 빌려 작은 식당을 열기로 한다.

> 나는 새로 열 식당 이름은 '달팽이'밖에
> 없다고 확신했다. 좋았어! 롤케이크처럼
> 이불을 둘둘 만 채 혼자 손가락을 딱 튕겼다.
> 그 작은 공간을 책가방처럼 등에 메고,
> 나는 지금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 나와 식당은 일심동체.
> 일단 껍데기 속에 들어가 버리면
> 그곳은 내게 '안주(安住)의 땅'이다.
> - 《달팽이 식당》 중에서 -

솜씨 좋은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귀중한 레시피들과 다양한 음식점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이 링고의 몸에, 피와 살과 손톱 사이에 나이테처럼 남아 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의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한 링고는 달팽이 식당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그려나간다. 달팽이처럼 느리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이번에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링고는 이웃주민인 구마 씨의 도움으로 머릿속에 그려 온 달팽이 식당의 이미지를 완성한다. 정해진 메뉴는 없고 손님은 하루 한 팀만 받는다. 철저한 사전 조사로 손님의 성격과 사연에 딱 맞는 요리를 내놓는 것이 달팽이 식당의 원칙이다.

달팽이 식당이 개업하는 날. 링고는 개업 준비를 도와준 구마 씨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로 한다. 구마 씨에겐 가출한 아르헨티나인 아내와 딸이 있었다. 그의 아내가 처음 만들어 준 요리가 카레였다는 걸 알게 된 링고는 석류카레를 만들기로 한다. 석류카레는 석류를 많이 넣어서 예쁜 루비색을 띠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턱 안이 상큼해지는 요리다. 직접 산에 가서 따온 석류로 만든 링고의 카레를 맛본 구마 씨는 아내와 딸에게도 먹이고 싶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석류카레는 대성공이었다. 링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기적은 그다음 날 일어났다. 딸을 데리고 가출한 구마 씨의 아내가 구마 씨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비록 두고 간 물건을 찾고 다시 가버렸지만, 구마 씨는 이렇게 된 게 석류카레를 먹어서라고 결론짓는다. 먹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해 요리하는 덕분일까. '달팽이 식당의 요리를 먹으면 사랑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의 마법

달팽이 식당의 다음 손님은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해 수십 년째 상복 차림으로 슬픔에 잠겨 지내는 할머니다. 링고는 미리 할머니와의 필담을 통해 할머니가 지금까지 먹어 본 적이 없을 음식들을 만들기로 한다. 사과겨된장절임, 새끼양고기구이, 유자셔벗, 바닐라아이스크림을 곁들인 마스카르포네 티라미수 등 엄청난 양의 풀코스 메뉴를 할머니는 작은 입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 전부 먹는다. 잠깐 눕고 싶다는 할머니는 그대로 다음 날 아침까지 달팽이 식당에서 잠을 잔다.

며칠 후, 구마 씨에 이어 할머니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상복만 고집하던 할머니가 상복이 아닌 옷을 입고 외출하고, 지팡이도 짚지 않고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것. 그날 밤 달팽이 식당에서 잠든 할머니의 꿈에 죽은 남편이 나타났고, 마침내 할머니는 영원할 것 같던 고독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뒤로도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품고 찾아온 손님들이 신비한 힘을 발휘하는 링고의 요리를 먹고 벅찬 마음으로 달팽이 식당의 문을 나선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 링고가 정성을 쏟아 만들어 내는 음식들은 오감을 자극하며 독자들을 기분 좋은 상상 속으로 이끈다.

이 소설은 주인공 링고와 저마다의 내밀한 상처를 지닌 손님들의 사연을 통해 시련을 딛고 삶을 긍정하며 계속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 들려준다. 식당 이름에는 한순간에 절망을 경험하고서도 '달팽이처럼 삶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주인공의 다부진 결심과 의지가 담겨 있다. 과거의 아픔 혹은 외로움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한 사람,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행복한 기운으로 감싸줄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어서 달팽이 식당의 문을 두드려 보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곳, 달팽이 식당의 주방엔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링고가 있다.

가끔 요리를 만들어도 맛이 나지 않았다.
문어가 자기 발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처럼,
고양이가 자기 성기를 핥는 것처럼
뭔가를 먹고 있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았다.

요리는 자기 이외의 누군가가 마음을 담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영양이 되는 것이다.
- 《달팽이 식당》 중에서 -

recipe

**소설 속 달팽이 식당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11월의 레시피 '석류카레'**

재료 석류 2개, 등심 300g, 감자 2개, 당근 1/2개, 양파 1/2개, 카레가루 반 컵, 물 400g, 식용유 약간, 소금 약간

① 석류 2개를 반으로 잘라 칼집을 넣은 뒤 물에 담가 알을 분리한다.
② 석류 1개 반은 믹서기에 갈은 후 채반에 내리고, 나머지 반은 토핑으로 활용한다.
③ 감자, 당근, 양파는 깍둑썰기하여 준비한다.
④ 예열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감자와 당근을 먼저 볶는다.
⑤ 감자와 당근이 반 정도 익었을 때 고기와 양파를 넣어 볶는다.
⑥ 물을 넣고 익힌 뒤 카레가루와 석류즙을 넣고 섞어주고 필요시 소금으로 간을 한다.
⑦ 접시에 밥과 석류카레를 담고 남은 석류로 장식해 완성한다.

함께 나누다

오늘의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아홉 번째 필사
김수영 〈거미〉
59 오늘의 사진관
깊어진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

NEWS

01 국민과 함께 한 국립중앙도서관 78년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 13일(금) 도서관 1층 열린마당에서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축사 및 전성수 서초구청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78주년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아울러 올해 도서관 발전과 이용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비롯한 총 7개 부문 시상식이 열렸다.

'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부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 조성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5점)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표창(8점)을 수여했다. 단체 부문은 광진정보도서관이, 개인 부문은 구립증산정보도서관 김나리 사서가 선정되었다.

'오픈액세스코리아(OAK) 유공' 부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한국과학기술원의 문복남 사서가 선정되었다.

협력형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부문: 한밭도서관이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 부문: 독서루틴 형성 챌린지 프로그램 '독서트라이애슬론'을 기획·운영한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과학 특화서비스를 운영한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 도서관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 전주시 도서관본부가 장관상에 선정됐다.

'도서관 빅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부문: '도서관 가자'와 '지역별 도서관 이용패턴과 교육격차 현황에 따른 영향관계 분석', '모르고 지나친 보물책 찾기, 책구경', '도서관 접근성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분석' 등이 각각 서비스 아이디어 및 데이터 분석 부문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책바다)' 부문: 서울도서관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

'책이음서비스 유공' 부문: 책이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수성구립 범어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장표창을 받았다.

기획총괄과 02-590-0779

02 국립중앙도서관 '열린마당' 실감체험관 콘텐츠 공개

한국의 고전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상영공간인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약 370평)이 10월 16일(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에 정식 개관했다.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을 상징하는 '지식의 물결' 책모형(39.2m×6.2m)과 천장, 기둥, 벽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되었다. 한국적인 색채, 문양 등을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한국 고전문학을 현대적인 감각의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미디어아트인 'K-문학의 재발견'과 작가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체험 공간인 '작가와의 만남' 콘텐츠가 제공된다.

'K-문학의 재발견'의 첫 번째 작품은 《관동별곡》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관서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원작에 기술된 금강산과 관동팔경의 주요 장소를 소재로 작가 정철의 심경과 소회를 미디어아트로 표현해 환상적인 요소를 더했다. '작가와의 만남'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살아있는 듯한 이상의 모습과 그의 작품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인 디지털북을 통하여 작가와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은 상시모드, 상영모드(매일 2회, 10:30, 15:30)로 운영되며, 비회원일 경우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지식정보서비스과 02-590-0746

03 국립도서관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활동 고찰

올해로 개관 78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 27일(수)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6호 발간을 통해 국립도서관 개관 및 해방 후 1년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 담긴 국립도서관 개관 당시와 초기의 주요 활동들은 국립도서관 기관지 《문원(文苑)》 내 〈도서관해방일사(圖書館解放日史)〉[1]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해방 당시의 신문과 관보 등 1차 자료들을 활용하여 살펴본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는 도서관 관련 동향 및 정책 이슈를 주제로 PDF 형식의 온라인자료로 발간되는 간행물이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 도서관 소개 >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메뉴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기획총괄과 02-590-0799

1) 1945년 8월부터 1946년 8월까지 1년간의 일지를 날짜별로 기록한 것

04 국립중앙도서관, '광고를 통해 보는 한국영화의 발자취' 전시 개최

전 세계인과 함께 하는 영화 축제 현장으로 K-도서관이 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0월 4일(수)부터 10월 13일(금)까지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진흥위원회(부산 해운대구) 1층 로비에서 '광고를 통해 보는 한국영화의 발자취' 전시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난 78년간 수집해온 한국 영화 관련 시나리오, 도서, 포스터, 신문, 비디오, 잡지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한 '광고를 통해 보는 한국영화의 발자취'[2] 디지털컬렉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1903년 황성신문에 실린 최초의 활동사진 상영광고 등 시대별 영화 광고 이미지 총 50여 점이 전시되었으며, 영화 원작 소설, 시나리오 등도 함께 선보였다. 특히, 1900년부터 1939년까지 초창기 많은 영화필름은 유실되었지만, 신문 등에 남아있는 상영 광고를 통해 당시의 영화 관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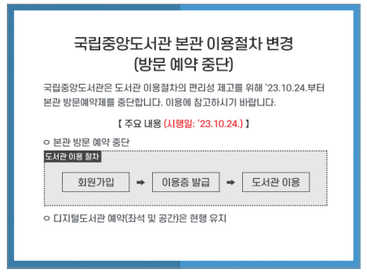
10월 7일(토)부터 10월 9일(월)까지는 전시와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 내 부스를 돌며 퀴즈를 풀어 제출한 참여자에게는 책 저금통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부스를 방문한 참여자에게는 전시된 영화 포스터가 담긴 엽서를 증정하였다.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0563

2) 한국영화사를 1900년부터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 특징과 그 특징을 대표하는 영화들을 선별하여 소개(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nl.go.kr) > 디지털컬렉션 > 주제별컬렉션 > 광고를 통해 보는 한국영화의 발자취)

국립중앙도서관
NEWS

05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방문 예약 없이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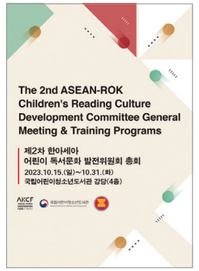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절차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10월 24일(화)부터 본관 도서관 방문예약제를 중단하였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방문 7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별도의 방문 예약 없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은 회원가입 > 이용증 발급 > 도서관 이용 순의 절차로 진행되며,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현행 유지로, 예약시스템 사이트(www.nl.go.kr/dl_reservation/#/login)에서 도서관 방문 7일 전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28

06 제2차 한-아세안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위원회 총회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0월 15일(일)~10월 31일(화) 17일간 '제2차 한-아세안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제2차 한-아세안 어린이 독서문화 발전위원회 총회'는 아세안 사무국(ASEC)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하며 한-아세안 11개국의 어린이 독서문화 환경 개선과 문해력 수준 향상을 공동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1차년도 총회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 2차년도 총회는 각국 AKRCC[3] 위원 1명과 어린이서비스 실무자 2명씩 10개국[4]에서 총 30명이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이번 2차 총회는 지난해 1차 총회에서 발족한 AKRCC의 합의된 공동목표를 기반으로 각국의 어린이 독서문화 프로그램, 홍보활동 등의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24년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외에도 아세안 국가 간 협업 및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총회 일정에 참가한 아세안 사서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도 함께 운영했다. 어린이서비스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법, 그림책 서평 등을 강연하며 우수 도서관 견학, 한국의 우수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10월 24일(화)에 개최된 '제15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에는 아세안 사서도 참석하여 한국과 외국의 도서관 동향 파악 및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모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3

3) AKRCC(ASEAN-ROK Children's Reading Culture Development Committee)
4)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07 어린이와 청소년, 온가족이 참여하는 제5회 미꿈소 축제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0월 21일(토)부터 10월 29일(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2023년 제5회 미꿈소 축제'를 개최하였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되었다.

특별공연 및 인공지능 관련 명사 특강 등 '개막행사' 개최

제5회 미꿈소 축제 개막식이 10월 21일(토) 오전 10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전자악기인 테레민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등을 역임한 이정모 관장을 초빙하여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란 주제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드론축구, 디지털동화, 3D프린팅 등 다양한 '체험·전시부스' 운영

10월 2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도서관 야외공간인 해봄마당에서 드론, 로보마스터 등 모빌리티 체험, 나만의 디지털동화 만들기, 실감형 콘텐츠, 3D프린팅 등 최신기술 체험, 뚝딱상자·머그컵 만들기,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참여학생들의 작품 전시 및 발표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작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즐길 수 있는 10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다양한 미래직업을 알아보는 '미래직업 멘토링'

4차 산업 혁명시대 흥미로운 미래직업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공지능 통신연구원, 디지털콘텐츠 기획자 등 3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해당 직업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강 및 멘토링 강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5

08 국립세종도서관, 10년의 기억 10년의 미래

국립세종도서관은 2023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9월 18일(월)부터 10월 20일(금)까지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 대상은 국립세종도서관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았다.

그림 공모전의 주제는 '국립세종도서관과 함께한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과 '앞으로 기대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의 미래 모습'으로 지난 10년의 기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기획하여, 개관 10주년 기념 도서관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출된 작품은 1,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3점), 우수상(15점), 장려상(30점) 총 48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발표는 11월 말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 및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수상한 작품은 국립세종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일인 2023년 12월 12일(화)에 전시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sejong.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205

국외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국내 도서관

NEWS

01 국립장애인도서관, '배리어프리 북트레일러(책소개) 공모전' 개최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북트레일러(책소개) 공모전'을 개최한다. 개인 및 단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도서관 누리집에 공지된 장애 분야 신간 도서 20종 중 한 권을 선택하여 음성, 자막, 수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추가한 북트레일러를 제작하여 응모(mcstnld@korea.kr)하면 된다. 응모 기간은 10월 6일(목)~11월 26일(일)까지이며, 개인 5점과 팀·단체 5점, 총 10점을 12월 12일(화)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과 유튜브에 게시되며,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상세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go.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02 한국도서관협회, 자생의료재단과 '한의학 건강강좌' MOU 체결

한국도서관협회는 10월 4일(수) 자생의료재단과 건강강좌 운영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시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한국도서관협회 곽승진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한의학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과 연계해 건강강좌가 필요한 각 지역의 도서관에 프로그램 및 의료진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강좌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희망 도서관을 모집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03 동해꿈빛마루도서관 시범 운영

어린이·청소년의 지식정보 문화 놀이터이자 시민 생활 문화 거점이 될 동해꿈빛마루도서관이 10월 4일(수)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동해시는 2019년 공공도서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과 정부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 천곡동 114번지 일원에 국도비 등 총 10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37m^2 규모의 동해꿈빛마루도서관을 건립했다. 꿈빛마루도서관은 최첨단 ICT 시스템과 RFID 자동화 시스템이 접목된 스마트 도서관으로, 11월 4일(토) 본 개관을 앞두고 있다.

04 한식진흥원 '한식도서관', 작은도서관 등록

한식진흥원이 한식문화공간 '이음' 내 '한식도서관'을 서울시 종로구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했다. 한식도서관은 서울시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한식문화공간 '이음' 지하 1층 약 240평 규모 면적에 30개 좌석, 1개 열람실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8월 개관한 후 국내·외 음식 관련 전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한식진흥원과 관련 유관기관이 발간한 도서 100여 종을 비롯하여 3,000여 권의 한식과 음식 관련 전문 도서를 소장하고, 매달 한식 북콘서트와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한식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국외 도서관

NEWS

01 핀란드 자동 주제색인 도구 '아니프', 이용성 더욱 확대 기대

아니프(Annif)는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주제색인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해 핀란드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Finland, NLF)이 개발한 자동 기술(description) 도구이다. 아니프는 NLF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새로 출시된 아니프 1.0은 향후 더욱 널리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프 1.0을 비롯하여 앞으로 출시될 버전들은 이전 버전과의 연동성을 최대로 높여 업데이트를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의 아니프가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기는 하나, 버전 1.0을 통해 그 이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02 호주 골드필드도서관, '지속가능한 주택 키트' 수요 높아

골드필드도서관(Goldfields Libraries, GL)은 2021~2025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동체의 욕구에 부합하는 도서관 우선과제를 선정하였다. 그중 2022년 초 GL은 컬렉션에 4개의 '지속가능한 주택 키트'를 추가했다. 개당 1,100달러에 달하는 이 키트는 열화상 카메라, 온도계, 전자제품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파워메이트(powermate), 단행본 《집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Energy Freedom Home)》 1권을 포함한다.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이 키트는 올해 키트의 수를 4개에서 17개로 늘렸다.

03 싱가포르국립도서관위원회와 SMRT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싱가포르의 대중교통이 더욱 풍요로워졌다. 싱가포르국립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 NLB)와 SMRT(Singapore Mass Rapid Transit) 공사가 협력하여 MRT 기차역 플랫폼과 버스 환승역에 노드(Node)를 설치했다. NLB 계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노드가 설치된 기차역 플랫폼과 버스 환승역에서 노드용으로 선정된 전자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직 도서관 계정이 없다면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NLB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계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드는 우드랜드(NS9), 비샨(NS17), 오차드(NS22), 티옹 바루(EW17)의 MRT 기차역과 우드랜드 통합환승허브, 부킷 판장 통합환승허브, 초아 추 캉 버스 환승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04 국제도서관협회연맹, 2024 세계도서관정보대회 두바이 개최 결정 철회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2024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를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10월 3일(화)에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도서관계 및 더 광범위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치를 주도했던 에미레이트도서관협회(Emirates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ELIA)가 통보한 사항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24년에는 WLIC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10월 5일(목), IFLA 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WLIC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다음 WLIC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추후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내 마음의 문장들

마음이 깊어가는 늦가을입니다.
자신을 거미란 존재에 빗대어
설움을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거미처럼 까맣게 타버린
화자의 마음을 떠올리며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11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김수영 시인의 〈거미〉입니다.

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으스러진 설움의
풍경마저 싫어진다

나는 너무나 자주 설움과
입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을바람에 늙어가는 거미처럼
몸이 까맣게 타 버렸다

- 김수영 〈거미〉 전문 -

깊어진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떨어지는 낙엽이 무수한 11월입니다.
낙엽이 지는 걸 보니 가을을 보내기
아쉽지만 색다른 매력을 풍기는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운 늦가을을 보내며 책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해볼까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깊어진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 )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10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완연한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한옥마을도서관) 이다.

전주 한옥마을도서관에서 유혜율 작가님의 《너는 나의 모든 계절이야》를 읽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손글씨로 '우리가 함께 쓰는 사랑의 역사'라고 써놓으신 것처럼 저도 제 곁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자고 느꼈습니다. 한옥마을도서관에서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기분입니다.

김○연 님

02

완연한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산책) 이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질 때면 산책을 합니다. 특히 가을에 단풍 구경도 하고 낙엽을 밟으며 걷는 길을 좋아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럴 것 같네요. 《그럴수록 산책》은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대단할 것 없는 사람이고 또 대단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도 결국 이 자연의 작은 일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요. 오늘도 산책을 하며 되새겨봅니다.

임○혜 님